

碩士學位論文

英語의 WH-移動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吳 京 保

2000年 2月

英語의 WH-移動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泰 洪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吳 京 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吳京保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김 종 훈
審査委員 현 완 송
審査委員 고 태 흥



英語의 WH-移動에 관한 研究

吳 京 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泰 洪

이 논문은 영어에 빈번히 나오는 wh-어 또는 wh-구의 이동표현에 관한 연구로 주로 지배결속이론에 근거하여 생성문법학적 차원의 고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 wh-이동에 있어서 wh-요소의 정확한 착지점을 찾아내고,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까지도 만들어 내는 생성이론의 지나친 문장 생성력을 제어하기 위해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필수적인 제약조건들을 살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변형생성이론에 있어서 wh-이동규칙을 설정해야 하는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살폈고, 이어 이러한 이동규칙이 wh-의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계사절, wh-감탄문, 심지어 분열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wh-구문에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했다.

이동의 대상이 되는 wh-요소의 유형은 기능이 비슷한 how를 포함하여 who, what, when, why, where, which와 같은 wh-어 뿐만이 아니라 wh-VP와 절 요소를 제외한 wh-NP, wh-PP, wh-AP, wh-ADVP와 같은 구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서 인상 이동되는 wh-요소의 궁극적인 착지점을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묵인해 써왔던 S'와 같은 전통적인 절 구조 신분을 근본적으로 재 수정했다. 즉, S'의 핵(head)을 S로 보지 않고, 보문자 COMP를 그 핵으로 보아 이를 최대투사한 CP(=C'')를 보통절의 구조로 보았다. 이때 CP는 그 지정어(specifier)를 C-bar 앞에 갖는다. 이를 토대로, wh-이동이 일어난다면 대입규칙에 의해 wh-요소는 CP의 비어있는 지정어 자리인 C-bar(=C')의 바로 왼쪽으로 이동되어 간다고 논증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보던 문 S의 신분을 또한 INFL을 S의 핵으로 삼아 최대투사한 IP로 재 설정해야 한다고 아울러 밝혔다.

끝으로, wh-이동규칙이 적용될 때에는 장벽이론과 함께 흔적과 결속이론, 하위범주조건, 공범주원리, 그리고, 엄밀순환조건과 같은 제약이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wh-이동변형규칙은 한번 이동할 때에 단 한번의 한계교점만을 넘어 wh-요소를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본래 한계적임을 논증했고, 상위절(=주절)에 앞서 하위절(=종속절)에 먼저 이동변형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Chomsky(1973)의 엄밀순환조건을 언급하면서 여러 규칙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살폈다.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초 록>

I .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2
II . WH-이동규칙의 설정 근거	4
1. WH-요소와 그 이동	4
2. WH-의문문과 WH-이동	5
3. 관계사절과 WH-이동	16
4. 기타 WH-구문과 WH-이동	25
III. WH-요소의 착지	28
1. WH-이동의 대상	28
2. 착지점과 절구조 신분 재설정	31
3. 문구조 신분 재설정	43
IV. WH-이동에 따른 제약	49
1. 흔적과 결속	49
2. 공범주원리	54
3. 하위인접조건	55
4. 엄밀순환조건	60
V. 결 론	63
▣ 참고 문헌 ▣	65
<Abstract>	66

I. 서 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기존의 언어 이론들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언어의 문장들이나 담화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편적 원리(universal principles)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언어관에 입각해 체계적인 가설을 설정한 후 개별언어(particular language)마다 적용해 그 타당성을 살피고, 그 개별 핵심문법간의 차이를 연구해 궁극적인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구하고 있다.

보편문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영어라는 개별언어를 보면, 한국어 등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의문사나 관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역할의 중요성은 크다. 더군다나 '의사소통의 신장'을 목적으로 삼는 오늘날의 영어교육에도 대화나 문장 속의 wh-요소가 갖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wh-이동을 논문의 주제로 택하게 되었다.

영어에서 의문문은 yes-no로 대답되는 yes-no 의문문(yes-no questions)과 어떤 개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wh-의문문(wh-questions), 반향의문문(echo questions)과 비반향의문문(nonecho questions), 그리고 전통적인 분류인 직접의문문(direct questions)과 간접의문문(indirect questions)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주로 직접 비반향 wh-의문문에 대해서 논하겠다. 그 외에 관계사절에 있어서도 제한적 관계사절, 동격 관계사절, 자유 관계사절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제한적 관계사절을 주로 다루겠다.

이 논문의 기초를 이루는 변형규칙이 하는 일은 기저형인 D-구조를 S-구조에 사상(mapping)하는 일이다. D-구조를 S-구조에 사상한다는 것은 기저형을 입력 자료로 하여 그것을 변형시켜 S-구조를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장의 유도과정에서 wh-이동 규칙이 S 속에 있는 wh-요소를 S'의 첫 성분이 되는 위치로 이동하

게 함으로써 이 규칙의 작용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D-구조 [s'... [s ... wh-XP ...]]

S-구조 [s'... wh-XP ... [s ...]]

S' → COMP(LEMENTIZER) [s NP I VP]

위의 도식에서 wh-XP는 wh-VP를 제외한 어떤 wh-요소도 문장의 앞 위치로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wh-요소는 'what'이나 'who'와 같은 단어층위(word-level)의 wh-어는 물론 'which car'와 같은 wh-NP, 'how pretty'와 같은 wh-AP, 'in which town'과 같은 wh-PP, 'how slowly'와 같은 wh-ADVP 등 구층위(phrase-level)의 wh-구도 포함한다.

2. 연구 내용



이 논문에서는 wh-요소가 포함되는 직접 비반향 의문문과 제한적 관계사절을 주로 다루되, wh-요소가 표면상 나타나 있지 않은 관계사절도 다루게 된다. 특히 Chomsky(1977)는 wh-의문문과 관계사절 뿐만 아니라, 비교문(comparative sentences), 분열문(cleft sentences), 화제화(topicalization)가 적용된 문장, 내포문의 목적어가 모문의 주어로 상승된 tough-이동 구문 등도 외현적 wh-요소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wh-이동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

이 논문은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wh-이동규칙을 변형이론 속에 설정해야 될 이론적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찾는다. 이 과정에서 that가 이끄는 관계사절에서 that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보문자(complementizer)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wh-이동규칙이 적용되는 구문을 외현적(overt) 측면은 물론이고 내현적(covert) 측면에서도 고찰하게 된다 제III장에서는

1) Noam Chomsky(1977), "On WH-movement," *Formal Syntax*, Culicover, Wasow and Akmajian eds,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71~132

이동되는 wh-요소의 착지(landing-site) 문제와 관련해서 변형이론 초기의 S'가 C와 S로, 그리고 S는 NP-I-VP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S'(S-bar)구조와 S구조를 각각 CP구조와 IP구조로 분석함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WH-구의 이동과 관련하여 여러 제약과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서는 혼적이론을 시작으로 wh-이동을 제약하는 하위인접조건, 공범주원리를 장벽이론과 함께 알아보고, wh-이동규칙이 한계적이지만 직접순환성을 어겨서는 안됨을 검토한다. 제V장에서는 제II장부터 제IV장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맺겠다.



II. WH-이동규칙의 설정 근거

변형규칙의 기능은 기저형인 D-구조를 S-구조에 사상(mapping)시키는 일이다. D-구조를 S-구조에 사상한다는 것은 기저형을 입력 자료로 하여 그것을 변형시켜 S-구조를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²⁾ 이러한 문장의 유도과정에서 wh-이동 규칙이 S 속에 있는 wh-요소를 S밖 문두로 이동시키게 된다. 이때 문장의 왼쪽으로 이동되는 요소는 what나 who와 같은 단어 층위의 의문대명사는 물론 which car와 같은 wh-NP, how pretty와 같은 wh-AP, in which town과 같은 wh-PP, how slowly와 같은 wh-ADVP 등을 포함한다.

1. WH-요소와 그 이동

wh-요소란 'wh-'로 시작하는 단어들, 즉 who, whose, whom, what, which, why, when, where를 가리킨다. 여기에 wh로 시작하지는 않으나 그 기능이 wh-요소와 같은 how를 포함시킨다.³⁾ 예를 들면, 'What book do you have?', 'Why do you think so?', 'How are you doing?'등에서 이런 어구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영어에는 wh-의문문과 yes/no-의문문, 반항의문문과 비반항의문문, 그리고 직접의문문과 간접의문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동규칙과 관련지어 주로 다루어지는 wh-의문문은 직접 비반항 의문문(direct nonecho questions)이다. 따라서 편의상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wh-의문문은 직접 비반항 wh-의문문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wh-이동을 개략적으로 우선 살피겠다.

2) Andrew Radford(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19

3) Andrew Radford(1997),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75

- (2) a)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in the garage? (surface structure)
 b) [_S *Which car* will [_S your father [_{VP} put ____ in the garage]]]? (S-structure)
 c) [_S [_S your father [_I will]][_{VP} put *which car* in the garage]] (D-structure)

영어를 쓰는 모국어 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2c) D-구조에서 주어 'your father'는 대체로 문의 가장 왼쪽에 놓인다. 동사구 'put *which car* in the garage'의 핵어(head) 'put' 또한 이 동사구의 제일 왼쪽에 놓인다. 그런데, (2b)의 S-구조에서 문의 의문사구 'which car'와 조동사, 즉 굴절소인 INFL 'will'은 원래의 뒤쪽 자리에서 문장 S의 앞쪽으로(그러나 여전히 S'안에) 이동하였다. 조동사 will은 문 S의 바로 왼쪽, 즉 원래 비어있던 보문자 COMP 자리로 이동한 것이고, wh-구는 보문자의 바로 왼쪽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 WH-의문문과 WH-이동



wh-이동규칙은 D-구조에서 S내에서 생성되는 wh-요소를 이동변형에 의하여 S' 내의 S 앞으로 이동시키는 규칙으로, 그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찾아 보려한다

1) 통사론적 근거

(1) 하위범주화

wh-요소가 D-구조에서 문 S 내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해 S'내의 S 앞으로 이동된다는 사실을 동사의 하위범주화 사실(subcategorization facts)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서 '*'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낸다.

- (3) a) John put [_{NP} *the car*][_{PP} *in the garage*]
 b) *John put [_{NP} *the car*]

c) *John put [PP in the garage]

d) *John put

위의 예에서 'put'과 같은 동사는 [NP], [PP]라는 두 개의 보충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동사 put을 하위범주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put : CATEGORIAL FEATURES . [+V, -N]

SUBCATEGORIZATION FRAME : [___ NP PP]

위 하위범주화 틀에 따르면 (5a)는 (3c)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어 비문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이 (5a)는 모국어 화자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적형 문장인 것이다.

(5) a)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in the garage? (surface structure)

b) [S' Which car will [S your father [VP put ___ in the garage]]]? (S-structure)

c) [S' COMP [S Your father [I will] [VP put [NP which car] [PP in the garage]]]] (D-structure)

즉, 의문문을 만드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이동규칙(movement rule)이 적용되기 이전, 즉 (5c)의 기저구조(D-structure)에서는 엄연히 wh-요소가 NP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의미역을 부여받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wh-요소가 이동이 된 후에도 그의 공백 '___', 즉 흔적(trace; t)은 그 자리에서 동사 put의 NP 보충어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만일 wh-구가 NP 보충어 자리에서 이동해 간 것이 아니고, 원래 문 밖에 있었던 것이면 이는 당연히 비적형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wh-구가 이동에 의해 생긴 것이어서 하위범주화 틀을 위배하지 않는 올바른 문이 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wh-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향의문문(echo question)의 경우를 하위범주화 규칙으로 살펴보겠다.

다음의 wh-반향의문문에서는 동사 put의 NP보충어가 모습만 wh-구로 달리한

채 D-구조의 모습 그대로 문장 안에 여전히 존재함을 보인다.

- (6) a) A: My father will put *the Sonata* in the garage.
B: Your father will put [*which car*] in the garage?
b) A: Will my father put *the Sonata* in the garage?
B: Will your father put [*which car*] in the garage?

(6)의 화자 B의 답변들은 모두 반향의문문이다. 그런데, 이 wh-구 모두는 각각의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로, 즉 동사 put의 보충어로서 PP 보충어와 함께 하위범주화 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 (7) a) John *introduced* Mary to Jane.
b) The committee *proposed* that Clinton be elected.
c) Whom did John *introduce* to Jane?
d) Who did the committee *propose* that be elected?

(7)에서 introduce와 propose는 각각 [___ NP PP]와 [___ S']의 하위범주화 틀을 지닌다. (7a)에서 NP와 PP를 보충어로 취하고, (7b)에서는 propose가 접속사 that 이 문 S를 이끄는 S'를 보충어로 취하고 있어서 하위범주화 틀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7c)와 (7d)는 그렇지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7c)에서 동사 propose가 PP보충어만을 취하고 있고, (7d)에서는 propose가 that내에 주어가 없는 문장을 보충어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7c)와 (7d)의 wh-요소 whom과 who가 D-구조에서 각각 introduce와 that 뒤에 있었지만 wh-이동에 의해 문두로 이동된 것이어서 모두 적형문들이다.

(2) 공백화 현상

원래 공백화(gapping)는 삭제변형의 한 형태인데, Chomsky(1965)는 삭제변형의 제약으로 복원 가능성 조건(recoverability condition)을 제안했다.⁴⁾ 여기에서는 어

면 요소가 이동에 의해 전치되는 경우 원래 흔적이 있는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wh-이동의 근거를 찾아 보겠다.

(8) a) [_S Which car will [_S your father put _____ in the garage]]?

b) *Which car will your father put the bike in the garage?

위의 예에서 보듯 (8a)의 공백에 동사 put의 NP 보충어가 될 수 있는 요소 'the bike'를 넣으니 (8b)처럼 비문법적인 문이 되고 있다. 이는 공백(gap)에 다른 요소가 채워지면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전치된 wh-구가 put에 의해 (목적)격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음성적으로(phonetically) 실현되는 모든 NP는 격을 받아야 한다'⁵⁾는 격여과(case filter) 조건에 의하여 틀린 문장이 된다. 즉, wh-구가 이동규칙에 의해 전치가 되더라도 그 빈 자리에서 흔적이 받는 격은 전치된 선행사 요소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요소가 그 공백을 채우고 격을 배정 받게 되면 전치된 wh-요소가 격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전치된 요소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을 때, put의 하위범주화 틀은 'put [NP][NP][PP]'가 되어 앞에서 언급한 동사 put이 갖는 '[__ NP PP]'라는 하위범주화 틀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8)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려면 추상적인 D-구조 설정과 wh-이동 규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2) 형태론적 근거

(1) 격표시

이번에는 wh-이동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겠다. 먼저 격배정과 관련하여 Chomsky(1980)가 주장하고 있는 격배정 원칙은 "I와 자매 관계에 있는 NP에 주격이 배정되고, 타동사나 전치사 바로 다음에 오는 NP에 목적격이 배당된다"고 하고 있다.⁶⁾

4) Noam Chomsky(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p. 144.

5) Noam Chomsky(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 113.

6) Noam Chomsky(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p. 25

- (9) i) Nominative case is assigned to an NP which is a sister of a finite I
 ii) Objective case is assigned to an NP which immediately follows a transitive V or P

구체적으로 한정절(finite clause)의 주어에는 주격이 부여되고,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에는 목적격이 부여된다는 말이다. 물론 타동사의 보충어인 소절(small clause)이나 예외절(exceptional clause)의 의미상의 주어⁷⁾에는 목적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의 예문은 형태론상 올바른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10) a) *I will tell her about him.*
 b) [s I [I will] [vP tell her [PP about him]]]

위의 격부여 규칙을 통해 (10a)를 분석해 보면 (10b)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예문의 이탤릭체 단어들은 각각 올바른 격을 부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wh-어가 있는 예문을 살펴보자.



- (11) a) *Who/Whom are [you sure _____ would admire Admiral Lee]?*
 b) *Who/Whom are [you sure John would admire _____]?*

(11)은 일견 격배정 원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나 적형 문장이 되고 있다. 위 각 예문에서 이탤릭체로 된 격을 부여받은 각 wh-어는 D-구조에서 위의 빈칸의 자리에 각각 있었다. 그 위치에서 그에 합당한 격을 각각 부여받았고, 이것은 이동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비논항 위치인 앞으로 간 것이라고 가정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wh-요소가 추출된 지역에는 흔적이 생기는데, 이 흔적이 배정받는 격을 전치된 선행사 wh-요소에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a)는 주격 who가 부여되어야 하는 까닭에 whom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11b)의 경우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7) 전통문법에서는 nexus관계를 나타낼 때 의미상 주어(wh)를 지칭하는 형식상의 목적어를 가리킨다.
 e.g. I want him to go there.(예외절) / I believe him honest (소절)

로 목적격이 부여되고 있다. wh-요소가 wh-이동에 의해 전치될 때 문어체의 경우는 목적격으로 whom만을 인정하나, 구어체에서는 who도 허용한다. 이러한 D-구조에서의 원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wh-이동규칙이 적용 안된 wh-반향의문문의 경우를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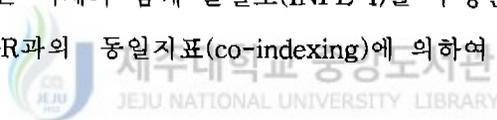
(12) a) You are sure [*who/whom* would admire Admiral Lee]?

b) You are sure [John would admire *who/whom*]?

위의 (12)는 격배정 원칙 (9)에 잘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12)를 설명하려면 심층 구조의 전제와 wh-이동규칙(movement)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일치

영어에서 인칭(person), 성(gender), 수(number) 자질의 복합체인 일치소(agreement: AGR)는 시제와 함께 굴절소(INFL=I)를 구성한다. 주어와 동사의 일치현상은 NP가 AGR과의 동일지표(co-indexing)에 의하여 일치관계가 표시된다.



(13) a) John loves Mary.

b) [_S John_i [_I Tense [+Present], AGR_i] love Mary]

Radford(1988)는 “한정적 I와 자매 관계에 있는 주격 NP는 인칭과 수에 있어서 I와 일치해야 한다”⁸⁾고 하고 있다.

(14) An NP which is the sister of a finite INFL must agree with INFL in Person and Number.

(14)에서 ‘한정적 INFL’이라 함은 기저에서 생긴 서법조동사(modal)나 V-이동에 의해 ‘비어있던 INFL에게로 와서 자리 매김한 일반동사가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한정동사와 주어는 인칭과 수에 있어서 일치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 예를 보면

8) Andrew Radford(1988), *op cit*, p. 473.

비문인지 정문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15) a) He might say [s: THIS BOY [ɪ *doesn't*/^{*/}*don't*] like Mary].

b) He might say [s: THESE BOYS [ɪ *don't*/^{*/}*doesn't*] like Mary]

위 (15)는 (14)의 규칙에 따라 일치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16)은 언뜻 보아서 일치 관계가 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심층구조의 설정과 wh-이동의 설정이 있으면 설명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wh-요소가 이동 전에 ‘___’ 위치에서 I와 일치관계에 있다가 문두로 이동이 된 것이다.

(16) a) WHICH BOY might he say [s: ___ [ɪ *doesn't*/^{*/}*don't*] like Mary]?

b) WHICH BOYS might he say [s: ___ [ɪ *don't*/^{*/}*doesn't*] like Mary]?

그러면, 이동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의 D-구조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wh-반향의문문의 경우로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고쳐보면 이동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17) a) He might say [s: WHICH BOY [ɪ *doesn't*/^{*/}*don't*] like Mary]?

b) He might say [s: WHICH BOYS [ɪ *don't*/^{*/}*doesn't*] like Mary]?

위 (17)은 일치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 따라서 D-구조에서 wh-이동에 의해 생성된 (16)도 적형 문장이므로, 격배정 설명을 위해서는 심층구조와 wh-이동규칙의 설정이 요구된다.

3) 음운론적 근거

(1) 조동사 축약

어떠한 요소가 단축되어 인접한 요소에 부착되고선 음성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현상을 축약이라 한다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조동사나 be 동사는 축약된다.

그러나, 조동사나 be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요소가 이동이 되어 그 공백(gap)에 흔적(trace)을 남기면 축약은 생기지 않는다.⁹⁾ 왜냐하면 이때 공백의 자리를 차지하는 흔적이 축약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 조동사 축약(auxiliary contraction)의 경우로 wh-이동의 설정근거를 살펴보겠다.

- (18) a) John is good at French, and Mary is good at English.
 b) John is good at French, and Mary's good at English.
 c) John's good at French, and Mary's good at English.

(18)의 모든 문장은 축약이 가능하여 적형인 문장들이다. 다음의 예에서 ∅는 앞의 'good'이란 어구의 생략을 표시한다

- (19) a) Tom is good at football, and Jane is ∅ at tennis.
 b) *Tom is good at football, and Jane's ∅ at tennis.

그런데, (19a)는 어구 good이 생략되었으나 축약이 안 되어 옳은 문이 되고 있는데 반해, (19b)의 경우는 생략된 good의 흔적이 그 공백에 그대로 남아 be동사와 주어 Jane사이의 축약을 방해하는 데도 불구하고, 축약되었기에 틀린 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e 동사는 그 뒤에 wh-구가 이동해 나간 흔적이 있으면, 주어인 NP와의 축약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 (20) a) *How good do you think they're ∅ at tennis?
 b) [_{AP} How good] do you think they are ∅ at tennis?
 c) *I wonder how much wine there's ∅ in the bottle.
 d) I wonder [_{NP} how much wine] there is ∅ in the bottle.

9) *Ibid*, p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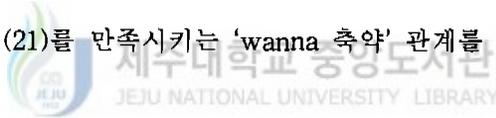
위 (20)에서 살폈듯이 축약이 불가능한 것은 기저구조에서 이탤릭체의 wh-AP나 wh-NP가 각각 조동사 'are'와 'is' 뒤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하여 전치되는 현상에 기인하다. 따라서 조동사나 be동사가 주어인 NP와의 축약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wh-이동규칙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2) 'wanna' 축약

want to는 구어표현에서 wanna로 축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wanna 축약(contraction)'이라 한다. 이 축약규칙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하에서 적용되고 있다.

- (21) i) want와 to가 인접하고 있다
- ii) want와 to 사이에 흔적이 끼어 있지 않다.
- iii) want가 to를 지배하고 있다.

(22)와 (23)을 통해 (21)를 만족시키는 'wanna 축약' 관계를 살펴보자.



- (22) a) Who do you want to visit?
- b) Who do you wanna visit?
- c) Who_i do you want PRO to visit t_i?

- (23) a) Who do you want to visit Tom?
- b) *Who do you wanna visit Tom?
- c) Who_i do you want t_i to visit Tom?

위 (22a)와 (23a)은 언뜻 보기에 want와 to가 인접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22b)와 (23b)에서 확인되듯이 축약가능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2a)에서 who는 원래 visit의 보충어 위치로부터 이동되어 왔는데, 이때에도 want와 to 사이에는 (22c)에서처럼 PRO가 여전히 개재한다. 이 경우 PRO는

영어의 부정사절이나 동명사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내현적(covert)인 공범주(empty category)를 가리킨다. 한편, (23a)에서는 (23c)가 보여 주듯이 who는 want와 to 사이에 있다가 이동된 것이어서 그 사이에 wh-흔적이 남겨져 있다. 따라서 wanna 축약은 사이에 낀 wh-흔적이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wh-흔적은 축약을 방해하나 PRO는 축약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울러 이것은 wh-이동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는 근거가 된다.

4) 의미론적 근거

(1) 재귀대명사

원래 “비주어 재귀사(non-subject reflexives)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절 내에서 성·수·인칭이 같은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절동료조건(classmate condition)을 만족시켜야 한다.¹⁰⁾ 이런 관점으로 다음의 wh-의문문을 보면 일견 잘못된 문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갖는 화자의 직관으로는 옳은 문장이 되고 있다.



- (24) a) *Which witness did you say you thought [s_____ perjured himself]?*
 b) *Who seems to you [s___ to have perjured himself/*myself]?*
 c) *How conceited about herself/*himself everyone thinks [s Mary is ___]!*

위의 (24a)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는 그 선행사 wh-NP인 ‘which witness’와 인칭 및 수의 일치(agreement) 관계에 있다. 따라서 ‘which witness’는 재귀대명사 himself의 선행사 자격을 가지며, 이 둘은 문법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위 (24a)에서 which witness는 himself가 속해 있는 []속 S내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D-구조를 상정해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which witness’가 D-구조에서는 (24a)의 빈칸에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 wh-이동에 의해 문장 앞으로 전치되어 S-구조에서는 위와 같은 모양을 한 것이다. 이때에도

10) *Ibid.*, p. 437

역시 받고 있던 '주격'이란 격(case)이나 '3인칭 단수'라는 수 일치와 자격은 빈자리인 흔적으로부터 부여받아 그대로 보존된 채로 있는 것이다. 나머지 예 (24b)와 (24c)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2) 문구조상의 중의성

언어학에서 중의성(ambiguity)이란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의성 현상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문장에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어휘적 중의성, 단어와 상관없이 주어진 문장의 통사적 관계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어서 생기는 구조적 중의성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인 통사적 관계에서 보이는 중의성을 살펴 보겠다.

(25) a) He is [completely at odds with his friends]

b) He may decide on the boat.

c) The chicken is ready to eat.

위 (25a)에서는 completely가 at odds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at odds with his friends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¹¹⁾, (25b)에서는 동사 decide가 PP 'on the boat'를 부가어로 삼느냐, 아니면 동사구 decide on이 명사 'the boat'를 보충어로 삼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¹²⁾ 그리고 (25c)에서는 the chicken을 eat의 목적어로 보느냐 아니면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¹³⁾ 같은 맥락에서 다음 (26a)의 wh-의문문은 문(sentence)의 구조상 애매하다. 왜냐하면, 하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6) a) *To whom* did you say that Mary was talking?

b) You did say *to whom* [that Mary was talking]

11) *Ibid.*, p. 249.

12) 김양순·박연미(1994), 「영어통사론강의」, 형설출판사, p. 122.

13) Man-soo, Han(1990), *Ambiguities, paraphrases, and grammatical elements in English*, Hanshun Publishing Company, p. 6.

c) You did say [that Mary was talking to whom]

위의 (26a)는 (26b)와 (26c)와 같은 두 가지의 D-구조를 가지면서 두 개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wh-PP인 to whom이 ① 동사 say의 보충어 (complement)가 되는 경우와 ② 동사 talking의 보충어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wh-이동이 적용되기 이전의 모습과 표면구조상 같은 wh-반향의 문법은 (27)과 같다.

(27) a) You said [to whom] that Mary was talking?

b) You said that Mary was talking [to whom]?

(26b)와 (26c)에서 'did'가 문장의 앞, 즉 'You' 앞의 빈 보문자자리로 이동하는 I-이동과 이어 wh-PP가 전치된 'did' 앞의 빈 자리로 이동해 나가는 wh-이동이 각각 생기면서 위의 두 문장의 D-구조는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에 와서는 (26a)의 모양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26b)는 wh-구가 한 번 이동하였으나, (26c)는 두 번에 걸쳐서 wh-이동을 겪어야 (26a)가 된다. 이때, 각 wh-이동은 (26b)처럼 1개의 한계절점(bounding node) S만을 지나거나, (26c)처럼 두 번에 걸쳐 1개씩의 한계절점 S를 넘으므로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을 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생겨난 (26a)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의미가 (27a)와 (27b)로 각각 생성된다. 이렇게 애매성 문제 처리에서 볼 때, 변형이론에서는 D-구조와 wh-이동규칙 설정이 요구된다.

3. 관계사절과 WH-이동

관계사절은 제한적 관계사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s)과 비제한적 관계사절(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s)로 대별할 수 있고, 다시 비제한적 관계사절은 동

격 관계사절(appositive relative clauses)과 자유 관계사절(free relative clauses)로 나눌 수 있다.¹⁴⁾

(28) a) I met the man [*who lives next door*] in town.

b) The book [*that you lent me*] was interesting.

c) I enjoyed the meal [*you made us*].

(29) a) John (*who was at Cambridge with me*) is a good friend of mine.

b) Yesterday I met your bank manager, *who was in a filthy mood*.

c) Mary has left home - *which must be very upsetting for her parents*.

(30) a) *What(ever)* he says is generally true.

b) You can have *whichever* one you want.

c) I will go *where(ver)* you go.

위에서 (28)은 제한적 관계사절이고, (29)는 동격 관계사절로서 코머(comma), 하이픈(hyphen), 괄호(parenthesis)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30)은 자유 관계사절로 선행사가 관계사 속에 포함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한적 관계사절과 자유 관계사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wh-이동규칙은 wh-의문문 외에 관계사절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관계사구문에서는 wh-요소가 (28b)와 (28c)에서처럼 내현적으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31) a) someone [*whom* I met]

b) [*What* will you do]?

(31)은 각 괄호 안에 관계사절과 의문사문을 차례로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wh-이동을 겪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D-구조에서 표층구조로 wh-이동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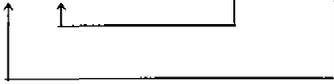
14) Andrew Radford(1988), *op. cit.*, pp 480~481.

을 보이면 각각 다음과 같다.

(32) a) someone [s' ∅ COMP e [s I met whom]]



b) [s' ∅ COMP e [s you will do what]]



1) WH-관계사절

관계사절은 관계사가 이끄는 종속절을 지칭하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누어 진다. 여기에서는 외현적 wh-요소가 이끄는 제한적 관계사절을 wh-관계사절 (wh-relatives)이라 할 수 있다.

(33) a) [s' *Whoever* you marry] is a matter of complete indifference to me.

b) [s' *Whom* the gods love] die young.

c) I remember someone [s' *whom* [s I met _____ at the station]]

d) I'll give you the book [s' *which* [s I read _____ yesterday]]

e) I was raining on the day [s' *when* [s we went to Paris _____]]

f) That's the place [s' *where* [s we stayed _____]]

g) It is the reason [s' *why* [s I went there _____]]

(33)의 경우는 wh-관계사절로 겉으로 보아도 그 구조가 꽤 뚜렷하다. 이 각 예에서 이탤릭체로 된 wh-요소가 원래는 D-구조에서 '_____'로 표시된 위치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하여 S밖 S' 내의 가장 왼쪽 성분으로 놓이게 된다. 위 (33a-b)는 명사절이고, (33c-d)는 형용사절이며, (33e-g)는 부사절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wh-관계사절과 똑같이 취급되어 온 다음의 that-관계사절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2) 보문자 관계사절

'that'이 이끄는 제한적 관계사절(that-relatives)을 보문자 관계사절(complementizer relatives)이라 할 수 있겠다. wh-어는 없고 'that'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의 예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위 (33)과 같다. 위 (33)의 경우에 wh-이동이 있듯이 (34)의 경우에도 wh-이동이 있음을 살피겠다.

- (34) a) I remember someone [*that* I met _____ at the station]
 b) I'll give you the book [*that* I read _____ yesterday]
 c) I was raining on the day [*that* we went to Paris _____]
 d) That's the place [*that* we stayed _____]
 e) It is the reason [*that* I went there _____]

Quirk 등(1985)을 비롯해서 전통문법에서는 관계사 'that'을 who나 which처럼 관계대명사로 본다¹⁵⁾. 그러나, 생성문법적 접근차원에서 보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보문자(complementizer)이다. 위의 예에서 보이지 않는 wh-요소가 심층구조에서 '____' 자리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해 괄호 [] 안의 가장 왼쪽의 비어있는 ∅ 의 자리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34a)의 D-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O'는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내현적(covert) wh-요소를 나타낸다.

- (35) I remember someone [_S ∅ *that* [_S I met Q at the station]]
 ↑

(34a)의 that을 보문자 COMP로 보아서 (35)처럼 분석하는 이유는 위에서 쓰인 제한적 관계사절의 'that'이 마치 보충어절(complement clause)인 (36)과 똑같이 문장을 이끄는 '보문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사절에 쓰인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다.

15) Randolph Quirk,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p. 366.

(36) I think [s' [c *that*] [s you are wrong]]

따라서, (34)의 각 'that'은 관계사절에서 앞에 놓여 문을 이끄는 보문자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다.

첫째, *who*나 *which*와 같은 전형적인 관계대명사 *wh*-NP는 전치사의 바로 다음에 놓이는 보충어,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지만, 'that'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문장 앞에 놓여 문장을 이끄는 보문자이다.

- (37) a) the book [PP *about which*] they were arguing
b) *the book [PP *about that*] they were arguing
c) the man [PP *to whom*] he was talking
d) *the man [PP *to that*] he was talking

둘째, 명사나 명사구는 이에 상당하는 대명사가 *Clinton's table*, *the man across the road's new car*; *his*, *her* 등¹⁶⁾과 같이 속격(*genitive case*) 형태를 갖는다. *who*나 *which*란 관계대명사 *wh*-NP 또한 'whose'란 속격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that'에는 이에 상당하는 속격 형태가 없다. 따라서 관계사절에서 쓰인 'that'은 보문자 COMP로 보아야 타당하다.

- (38) a) the man *whose*/**that's* mother died
b) the book *whose*/**that's* cover was torn

셋째, 대체로 전형적인 *wh*-구는 특정한 통사적 특징이나 의미상의 특징을 갖는다. 이를테면, 성(*gender*)이나 생명의 유무성(*animacy*)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전형적인 보문자 COMP는 그럴 수가 없다. 예컨대, *who*는 [+HUMAN]자질을 가져 인간과 관련한 선행사와 같이 쓰인다. *which*는 [-HUMAN]자질을 가져

16) 김한창(1991), 「신대학영문법」, 형설출판사, p. 90.

인간이 아닌 사물과 관련한 선행사와 같이 쓰인다. 이에 비해, 영어의 'that'은 전형적인 보문자 COMP의 특성을 가졌다. 이를테면, 'that'은 의미상 중립(neutral)이거나 다른 어휘의 도움을 받아야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that'은 어휘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보문자로서, [+HUMAN]자질을 갖는 선행사나 [-HUMAN]자질을 가지는 선행사나 어느 것이라도 같이 쓰일 수 있다. 다음의 '는 의미론상 의심이 가는 문이나 표현임을 나타낸다.

- (39) a) the man *that/ who/ which* we saw in the hall
 b) the film *that/ which/ who* we saw on the TV

넷째, 전형적인 wh-NP는 한정절(finite clauses)이나 비한정절(infinite clauses)에서 모두 쓰인다. 이에 비해 전형적인 보문자는 일정한 형태의 절에서만 쓰인다. 즉, 보문자 'for'의 경우는 부정사절(infinitive clauses)을 이끄는 데만 쓰이고, 이에 대해 보문자 'that'와 'if'는 한정절을 이끄는 데에 쓰인다. 관계대명사는 다음 (40)에서 보듯 한정절과 비한정절 모두에 쓰일 수 있다.



- (40) a)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b) I don't know *what* to say.
 c) She is not a person [_{PP} *on whom*] to rely.
 d) This is a good instrument [_{PP} *with which*] to measure vibration.

이에 비해, 다음과 같이 *that*은 한정 관계사절에서만 쓰이고, 비한정 관계사절에선 쓰이지 않는다.

- (41) a) She is not a person [*that* you can rely on].
 b) *She is not a person [*that* to rely on].

이처럼 한정 관계사절에만 쓰여야 하는 영어의 'that'은 보문자 COMP의 특징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that*은 한정 관계사절(*finite clauses*)을 이끄는 보문자(*complementizer*)이다.

다섯째, *that*을 *wh*-요소로 보지 않으려는 이유는 *wh*-이동의 한 특징에서 알아볼 수 있다. 즉, *wh*-이동이 일어난 경우엔 *wh*-어가 있던 원래의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 '공백(*gap*)'을 만든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다음 예를 보겠다.

(42) a) *He is someone [*that* you never know whether to trust *him* or not]

b) *He is someone [*whom* you never know whether to trust *him* or not]

위 (42a)의 관계사절의 예는 %가 나타내듯 지역 방언으로 표준적인 영어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that*'이 보문자 COMP라고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that*이 *wh*-어라면 이동 후 *trust*의 목적어 자리는 비어(*gap*)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선 비어 있어야 할 자리에 '*him*'이 와 있어도 정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wh*-이동이 있지도 않았으며, '*that*'은 관계사(*relative*)가 아니라 그저 문을 이끄는 역할이나 하는 보문자(*complementizer*)라는 논리가 된다. 이를테면, (42a)의 '*that*'이 관계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대치가 가능한 관계사를 넣은 (42b)가 문법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wh*-이동이 있었으니, 당연히 *wh*-어의 원래 자리, 즉 '*trust*'의 목적어 자리는 비어 있어야지 다른 문요소 '*him*'으로 채워질 수 없다. *wh*-어 '*whom*'은 동사 '*trust*'의 목적격을 부여 받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동규칙이 적용된 후에도 그와 똑 같은 '목적격'을 그대로 갖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관계사절에서 나오는 '*that*'은 보문자(*complementizer*)이지 관계사*wh*-NP가 아니다. *that*을 보문자가 아닌 관계대명사 *wh*-요소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43) a) You may take the book [*that* I put on the table].

b) Jane is not a person [*that* you can rely on].

c) The gentleman is the man [*that* we saw in the pub].

위 (43)의 경우에 [] 속의 put, rely on, 그리고 saw는 하위범주화 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put의 경우만을 하위범주화하면 [__ NP PP]로서 동사 'put'은 NP 보충어와 PP보충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that'을 보문자라고 했으면, 어딘가에 관계사 wh-NP가 있어야 맞는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의 문은 틀리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who, which, where, when, why 등과 같은 외현적(overt) 관계사가 있는 반면에 내현적(covert) wh-관계사도 존재한다고 보아, (43)에서 내현적 wh-NP가 이동해 보문자 'that'의 앞으로 갔다고 가정하면 된다. Chomsky(1986)는 이러한 내현적 관계대명사를 'empty wh-operator'란 용어를 쓰면서 (44)와 같이 그 자리를 'O'로 표시했다¹⁷⁾.

(44) a) the book [s' Ø [c that] [s I put O on the table]]

b) the book [s' O [c that] [s I put ____ on the table]]

위에서 'O'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관계대명사(empty relative wh-NP operator)를 가리킨다. (43)의 괄호 부분은 이동규칙에 의해 (44a)에서 (44b)로 변형되므로 동사 put의 하위범주화구조 [__ NP PP]를 만족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O'은 내현적 관계대명사 wh-NP이기 때문이다. (44b)처럼 이것은 외현적 wh-구와 마찬가지로 wh-이동을 하여 보문자의 왼쪽인 빈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문은 표면구조상 똑 같다. 내현적 관계대명사 wh-NP의 이동이 있는 (44b)의 구조는 마치 외현적 관계대명사 wh-NP와 보문자 that을 연이어서 취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비표준 영어나 고대 및 중세 영어, 게다가 보편문법의 차원에서는 프랑스어에서도 이와 같은 문구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¹⁸⁾

(45) a) England put themselves in a position [*whereby that* they took a lot of

17) Noam Chomsky(1986), *Barriers*, MIT Press, p. 56.

18) Andrew Radford(1988), *op cit*, p. 486.

- credit for tonight's game] (Ron Greenwood, BBC radio 4)
- b) *rod on ðære ðe Crist wolde ðrowian* [Old English]
 (→ cross on *which that* Christ would suffer)
- c) a doghter *which that* called was Sophie [Middle English]
- d) la fille *avec qui que je parle* [Canadian French]
 (the girl with who that I speak → the girl with whom I'm speaking)

3) 영관계사절

최근 생성문법에서 일컬어지는 ‘영관계사절(zero relatives)’ 즉, 이전의 용어 ‘접촉관계사절(contact relatives)’¹⁹⁾이란 외현적 보문자 *that*도 없고, 외현적 *wh*-구도 없는 관계사절을 말한다. 모두가 내현적(covert)이라고 보면 설득력을 갖는다. 다음의 예가 그렇다.

- (46) a) someone [I met]
 b) the book [I read]
 c) the day [we went to Paris]
 d) the place [we stayed]
 e) the reason [I went there]

위에서 다룬 ‘영운용소(empty operator)분석’을 통해 (46)을 살펴보면, 영관계사절은 영보문자(empty complementizer)와 *wh*-이동에 의해 앞으로 이동하는 영 *wh*-요소(empty *wh*-XP)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다룬 세 유형의 관계사절을 다시 예시하여 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본다.

- (47) a) someone [_S *whom I met*]
 b) someone [_S *that I met*]

19) Otto Jespersen(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td p 360.

c) someone [s' I met]

(47a)는 영보문자를 가지면서, 외현적 wh-NP의 이동을 갖는 wh-관계사절이다. 이에 대해, (47b)는 외현적 보문자와 영(empty) 대명사인 wh-NP 운용소 'O'가 있어 wh-이동을 겪은 보문자관계사절이다. 그리고, (47c)는 영보문자와 wh-이동을 겪은 영관계대명사(empty relative)인 wh-NP 운용소 'O'가 있는 영관계사절(zero relatives), 즉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접촉관계사절(contact relatives)이다. 이 세 유형의 D-구조를 보이면 각각 다음과 같다.

- (48) a) [NP someone[s' whom c e [s I met _____]]
b) [NP someone[s' O that [s I met _____]]
c) [NP someone[s' O c e [s I met _____]]

(48)에서 보듯 위의 세 관계사절은 wh-이동을 겪은 것이다. 이 세 문의 구조는 두 가지의 매개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즉, 문 또는 절이 외현적 보문자(overt complementizer)에 의해 이끌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현적(covert) 보문자에 의해 이끌리고 있느냐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외현적인(overt) wh-요소의 이동이 있었느냐, 아니면 내현적인(covert) wh-요소의 이동이 있었느냐가 그것이다.

4. 기타 WH-구문과 WH-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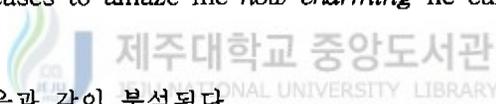
영어에는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간에 wh-요소의 이동을 보이는 구조가 많다. 감탄문과 분열문은 의문사구문과 관계사구문 이외에 추가 될만한 wh-이동을 겪는 구문들이다. 역시 여기서도 wh-이동규칙이 적용된다.

1) 감탄문

감탄문(exclamatives)은 강한 감정을 나타내며 형태적으로는 감탄부호 ‘!’가 붙는다. 감탄문은 How pale you look!, What a beautiful woman she was! 등과 같이 ‘주어 + 술부동사’ 형태의 대형문 유형(major sentence type)과 What a pity!, How nice! 등과 같이 형태를 갖추지 않은 소형문 유형(minor sentence type)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또한 전자는 직접·간접 감탄문으로 다시 분류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형문 유형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다음 두 예문 (49a)와 (49b)는 직접 wh-감탄문이고, 이어지는 두 예문(49c)와 (49d)는 간접 wh-감탄문, 즉 주절에 종속된 wh-감탄문이다.

- (49) a) *What a nice pear* Mary's got!
 b) *How charming* he can be!
 c) He remarked on *what a nice pear* Mary had.
 d)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charming* he can be.



위의 각 예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50) a) [s'[_NP *What a nice pear*] [c e] [s Mary's got ____]]!
 b) [s'[_AP *How charming*] [c e] [s he can be ____]]!
 c) He remarked on [s'[_NP *what a nice pear*] [c e] [s Mary had ____]].
 d) It never ceases to amaze me [s'[_AP *how charming*] [c e] [s he can be ____]].

위 (50)의 경우 역시, 이탤릭체로 된 wh-구가 D-구조에서는 ‘____’로 표시된 곳에 있었다가 wh-이동에 의해 전치되어 S' 안 보문자의 왼쪽 빈자리로 온 것이다. 위의 예 (50c)과 (50d)는 감탄문이지 의문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탄문은 위에서 보듯 이탤릭체 부분이 [what a/an count noun(가산명사)] 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의문문에 없다. 다음의 (51b)가 비문이 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 (51) a) What nice dress was she wearing?
 b) *What a nice dress was she wearing?

2) 분열문

하나의 절(clause)이 각각 동사를 가진 두 개의 절로 분리된 구문을 말하며, 이때 주절은 'it is ...'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분열문(cleft sentences)은 [it be XP S']란 구조를 가지는데, 역시 wh-이동을 겪는다. 분열문은 일종의 강조구문으로서 주절의 초점 위치에 강조되어 나오는 요소는 [-V] 속성을 가진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된다.

- (52) a) It is JOHN [*who* Jane really loves].
 b) It is JOHN [*that* Jane really loves].
 c) It is JOHN [Jane really loves].

위의 예에서 'JOHN'의 자리는 강조를 받는 말이 오는 자리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 안의 요소들은 마치 위에서 다루었던 각각 wh-관계사, 보문자 that-관계사, 영(zero)관계사를 갖는 관계사절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세 예문도 외현적 또는 내현적 wh-구가 이동을 겪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52)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53) a) It is JOHN [_{S'} *who* [_C e] [_S Jane really loves _____]].
 b) It is JOHN [_{S'} ∅ [_C *that*] [_S Jane really loves _____]].
 c) It is JOHN [_{S'} ∅ [_C e] [_S Jane really loves _____]].

(53a)에서 외현적 wh-요소가 D-구조에서는 '___'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하여 보문자 앞으로 이동된 것이다. (53b)와 (53c)에서는 내현적 wh-요소가 역시 D-구조에 있다가 wh-이동에 의해 보문자 COMP 앞으로 이동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 변형이론 내에 wh-이동 규칙 설정의 타당성을 통사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그리고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이 규칙적용이 wh-의문문, wh-관계사절, wh-감탄문, 분열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토해 보았다

Ⅲ. WH-요소의 착지

먼저 이동규칙이 적용될 때에 그 wh-이동의 대상을 알아보고, wh-이동시 wh-요소가 이동되어 가는 착지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를 살펴겠다. 이와 함께 절구조를 S'로 보기보다는 CP로 보고, 그리고 문장을 S로 보기보다는 IP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려 한다.

1. WH-이동의 대상

1) 일반적인 이동대상의 유형

여기서는 문장 구성성분(sentence constituents)의 어떤 요소가 wh-이동을 겪게 되는가를 고찰하겠다. 여기서 'wh-요소'란 II장에서도 살펴보지만 의문사를 포함한 임의의 구요소(wh-XP)까지 가리킨다.

(54) a) [NP *What book*] has he given _____ to Mary?

b) [PP *To whom*] can I send this letter _____?

c) [AP *How successful*] will Mary be _____?

d) [ADVP *How quickly*] can he drink the beer _____?

위 (54)에서 (54a)는 이동규칙의 적용을 받은 wh-NP가, (54b)는 wh-PP가, (54c)는 wh-AP가, (54d)는 wh-ADVP가 wh-이동규칙의 대상이다. 따라서 (54a-d)의 wh-요소를 일반화시켜 보면 wh-이동규칙의 적용대상은 wh-XP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55)의 wh-VP가 그렇다. 다음의 예에서 의심스러운 표현임을 나타내는 물음표가 여러 개 붙을수록 비문에 가깝게 된다.

(55) a) ??[_{VP} *Working how hard*] has he been?

b) ? * [_{VP} *Do what*] did he ask you to?

이 예문들은 있을 법하지 않은 꽤나 의심스러운 문이거나 비문이 되고 있다. 이들은 (56)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56) a) [_{ADVP} *How hard*] has he been 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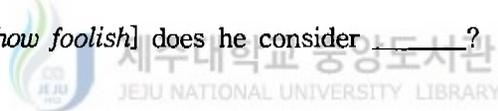
b) [_{NP} *What*] did he ask you to do?

(55)와 (56)를 살펴 보면 VP는 wh-이동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절구성성분, 즉 S'(=CP), S(=IP), SC²⁰⁾는 이동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7) a) * [_{S'} *Where she was going*] do you know _____?

b) * [_S *John to be how foolish*] does he consider _____?

c) * [_{SC} *John how foolish*] does he consider _____?



위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한다.

(58) a) Do you know [_{ADVP} *where*] she was going _____?

b) [_{ADVP} *How foolish*] does he consider John to be _____?

c) [_{ADVP} *How foolish*] does he consider John _____?

따라서 (55)와 (57)에서 확인했듯이 S'(=CP), S(=IP), SC와 같은 절 구성성분 (clausal constituents)과 wh-VP만을 제외한 구 구성성분(phrasal constituents) NP, PP, AP, ADVP만이 영어의 의문문에서 wh-이동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VP를 제외한 임의의 wh-XP가 이동규칙의 적용대상이다.

20) SC는 소절(Small Clause)로서, COMP도 없고 INFL도 없는 일종의 부동사절이다

2) 전치사 좌초현상과 전치사 수반현상

“*[COMP ... [PP P α] ..]”(단, α 는 음성적으로 공백이다)”라는 전치사좌초여과제약(preposition stranding filter)은 어떠한 보문자도 외현적 보충어(overt complement)가 없는 전치사만을 지니고 있으면 그 문은 부적격(ill-formed)하다는 여과제약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어떤 전치사가 그의 목적어도 없이 혼자 보문자 속에 남아 있으면 그 문장은 비문으로 처리된다는 원리이다.²¹⁾ 그런데, 전치사 좌초와 달리 wh-이동이 적용될 때 wh-요소 뿐만 아니라, wh-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큰 NP나 PP 전체가 이동하는 현상은 전치사 수반이동이라 한다.

(59) a) **Who don't they think to he will talk?*

b) **Who don't they think [s:[COMP [PP to t']][s he will talk t]]?*

c) [_{NP} *Who*] did you turn [_{PP} *to* _____] for help? (전치사 좌초현상)

d) [_{PP} *To* [_{NP} *whom*]] did you turn _____ for help? (전치사 수반현상)

(59a)가 비문이 되는 것은 전치사좌초여과제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9a)는 (59b)로 분석된다 원래 *to whom*이 t_i 에서 보문자 COMP 속 t'_i 로 1차 이동한 다음 거기서는 *who(m)*만이 문두로 2차 이동되어 전치사 *to*만 보문자 속에 좌초된 채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비문이 된다. (59c-d)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59c)에서 처럼 PP 속 전치사의 목적어인 wh-NP만이 앞으로 나가 전치사가 문중에 남겨질 수도 있고, (59d)처럼 PP가 한꺼번에 질 앞으로 이동해 나갈 수도 있다. (59c)의 경우를 ‘전치사 좌초현상(stranding the preposition)’이라 하고, (59d)의 경우를 ‘전치사 수반현상(pied piping the preposition)’이라 한다.²²⁾

문제는 wh-NP의 이동이나 wh-PP의 이동이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구동사 이른바, agree on, ask for, depend on, shout at, talk to 등과 같은 복합동사(complex verbs)를 wh-이동대상과 관련하여 (59c)와 같은 전치사 좌초의 경우를

21) 전형진(1991), 「영어의 생성문법」, 신론사, pp. 94~95.

22) Andrew Radford(1988), *op cit.*, pp 496~497.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분석 규칙(reanalysis rule)을 적용하겠다. 위의 (59)에서 복합동사 'turn to'가 전치사 좌초현상을 겪는 (59c)는 wh-이동의 규칙 적용이 있기 전에 먼저 복합동사의 수동태 경우처럼 재분석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를 도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0) a) You did [_{VP} turn][_{PP} to [_{NF} who]] for help? (reanalysis rule 적용)
 ↓
 b) You did [_{VP} turn to][_{NF} who] for help? (wh-movement rule 적용)
 ↓
 c) [_{NF} Who] did you turn [_{PP} to ____] for help?

그런데, 이러한 전치사좌초 의문사구문(preposition-stranding in wh-structure)에 이런 재분석 규칙의 적용이 모든 경우에 타당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물론, 수동태에서는 전치사 좌초 구문인 경우 재분석 규칙이 꽤 잘 적용되나, 이 wh-구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wh-구문에서는 이런 규칙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인 (59c-d)와 같은 두 문장이 생겨 날 수가 있다. (59c)는 (60)처럼 재분석 규칙의 적용을 받은 다음에 wh-구의 이동이 일어나 만들어진 문의 경우고, (59d)는 재분석 규칙이 적용 안 되고서 바로 wh-이동이 적용되어 생긴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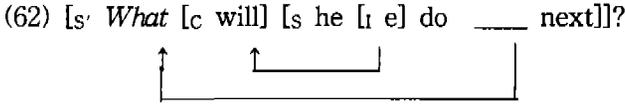
2. 착지점과 절구조 신분 재설정

1) wh-요소의 착지점 분석

지금까지 wh-요소는 wh-이동규칙의 적용을 받아 이동할 때에 보문자의 앞자리, 즉 바로 왼쪽에 착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wh-이동 규칙에 의해 wh-요소가 이동시 착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살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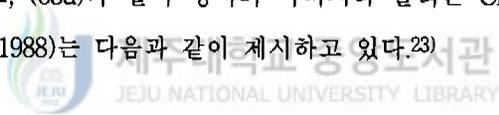
(61) *What* will he do next?

이 문의 wh-이동규칙의 적용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식에서 보듯 먼저 조동사 *will*이 INFL의 자리에 있었다가 I-이동에 의해 보문자 위치로 이동해 있고, *wh*-요소는 *wh*-이동에 의해 S'내 보문자의 바로 왼쪽 자리로 이동해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wh*-요소가 이동될 때의 착지점은 보문자의 바로 앞자리가 된다.

이번에는 위의 문보다 더 복잡한 종속의문사절(embedded questions)의 경우를 살펴 보겠다. (63a)와 (63b)와 같이 BBC 라디오 및 TV 방송이나 (63c)와 같이 구어체 연설문, 그리고, (63d)와 같이 영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Chaucer의 작품에서 뽑아온 자료를 Radford(1988)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³⁾



- (63) a) I'm not sure what kind of ban that FIFA has in mind (Bert Millichip, BBC radio 4)
- b) We'll see what sort of pace that Daley Thompson's running at (Ron Pickering, BBC 1TV)
- c) We can look at our statistics and see what sort of pattern that we get (Bob Morris Jones)
- d) ... they stoden for to see who that ther com (Chaucer)

영어에는 이처럼 '외현적 *wh*-요소 + 외현적 보문자(*that*)' 형태의 구문이 있다. 이는 *wh*-이동시 *wh*-요소의 착지점은 보문자 위치가 아니라 보문자의 앞 위치임을 잘 증명하는 셈이다. 한편, *wh*-구의 착지점이 감탄문 구조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구문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²⁴⁾

23) Andrew Radford(1988), *op. cit.*, p. 500.

24) *Ibid.*, pp. 486~501.

(64) What a mine of useless information that I am! (Terry Wogan, recorded on BBC Radio 2)

(63)과 (64)에서 보듯 이동된 wh-어구는 역시 외현적 보문자인 that 바로 앞에 오고 있다. 이처럼 wh-요소가 외현적 보문자 앞자리에 이동해 위치한다는 것은 wh-이동시 wh-요소는 보문자 위치가 아닌 보문자 앞 위치를 차지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보편문법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한국어는 영어와 다른 경우를 보인다. 한국어는 절 끝에 보문자 COMP(clause-final complementizer)를 놓는다.

(65) a) [s 어머니가 오후에 외출할] 지를 (너는) 아니? (Yes/No question)

→ your mother this afternoon go out whether you know

⇒ 'Do you know whether your mother will go out this afternoon?'

b) 그는 [s 어머니가 언제 외출할] 지 (를)/외출하느냐]고 묻는다.(indirect question)

→ he my mother when go out that ask

⇒ 'He asks me when (that) my mother will go out?'

c) [s 어머니는 언제 외출해/하시(는)] 지요? (direct WH-question)

→ your mother when go out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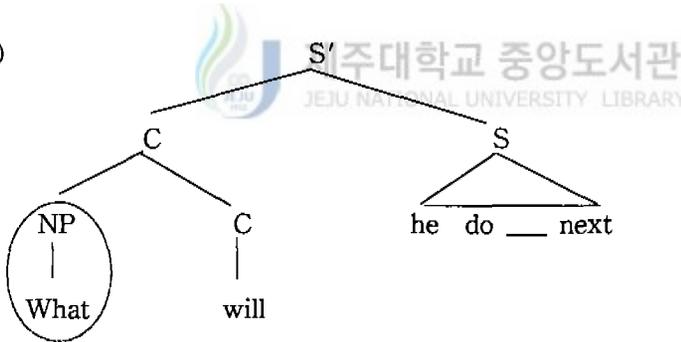
⇒ 'When will your mother go out?'

위의 (65a)와 (65b)는 보문자 ‘~지/~냐고(whether 또는 that)’가 뒷부분에 오고 있다. 한편, (65c)의 경우도 사선 왼쪽의 현대어 보통체와는 달리 오른쪽 경어체에서는 보문자 ‘~지’를 선택적으로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위의 예문들에서 의문사와 보문자의 위치를 살펴 보면, 절의 끝에 보문자가 오는 언어인 한국어는 절의 앞에 보문자를 두는 영어와는 달리 의문사의 이동규칙의 적용이 촉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어 또한 문미에 보문자가 오므로 wh-요소가 보문자 앞에 온다는 이동규칙은 적용되지 못한다.²⁵⁾ 따라서, 영어에서처럼 보문자를 절 앞에 두는 언어에서만 wh-

이동이 일어날 때에 wh-요소가 보문자의 바로 앞자리로 유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h-이동에 의한 wh-요소의 착지점(landing site)과 관련하여 보편문법학자들은 보문자의 앞에 wh-요소가 유인되는 조건과 원리를 보편문법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애써 왔다. Chomsky(1980, 1981)가 1980년대초 그의 논문 'On Binding'²⁶⁾과 저서 *Lectures*²⁷⁾에서 주장했던 보문자 부가규칙(C-adjunction) 분석을 살펴보면, Chomsky는 wh-이동규칙을 하나의 부가규칙으로 보았다. 이 부가규칙이 여러 언어에 보편적인 규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문사어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언어의 경우는 wh-요소가 보문자의 왼쪽에 놓이고, 의문사어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언어에서는 wh-요소가 보문자의 오른쪽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는 wh-요소가 왼쪽으로 이동되는 언어이므로 wh-이동규칙이 적용되면 wh-요소가 보문자의 바로 왼쪽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61)의 문을 그의 주장에 따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66)과 같다.

(66)



(66)처럼 보문자 COMP에 절점(node) 한 개를 더 첨가하는 이 Chomsky의 부가규칙은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Navajo어나 Vata어의 경우도 wh-이동 규칙 적용을 받는데, 이때 절 앞쪽에 이동되는 wh-요소는 보문자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oopman(1984)은

25) *Ibid.*, p. 502.

26) Noam Chomsky(1980), *op. cit.*, p. 5.

27) Noam Chomsky(1981), *op. cit.*, p. 53.

문 S 앞에 보문자가 없는 Vata어에서는 wh-요소를 보문자에 첨가할 수 없다고 한다.²⁸⁾ (67)과 (70)에서 보듯 영어와 차이를 보이는 Vata어는 문이나 절 끝에 보문자를 두며, wh-이동이 생길 때에는 wh-요소를 문 S 앞에 둔다.²⁹⁾

- (67) *yí ñ nŭ lá ?*
 → What you do PARTICLE
 ⇒ 'What did you do?'

따라서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언어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wh-이동이 있을 때에 wh-요소가 보문자의 왼쪽에 부가된다고 하는 Chomsky의 '보문자 부가규칙(C-adjunction)' 분석은 타당성을 잃는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얻기 위해 이제는 wh-요소의 착지점과 관련해서 보통절을 S'로 분석하지 말고, 보문자를 S'의 핵(head)으로 삼아 최대투사한 CP로 분석하는 것이 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문자를 핵으로 보고 보문자에 의해 도입되는 S를 보문자의 보충어로 분석하면, 그 결과 보문자와 그 S인 보충어가 중간투사된 C'성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C'도 수의적인 지정어(specifier) XP와 함께 C'성분으로 최대투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영어에서나 한국어, 중국어, Vata어 모두에서 wh-이동시 wh-요소는 C-지정어인 XP로 이동된다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문제해결이 쉬워진다. 이런 분석에 따라 영어에서의 wh-이동은 wh-요소를 보문자의 바로 왼쪽에 놓는 것이라기보다는 C'의 바로 왼쪽에 비어있는 C-지정어 자리로 옮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착지점 분석에 따른 절구조 신분 재설정

이전의 분석인 S'(S-bar)구조는 어떤 핵의 최대투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X-bar 이론에도 맞지 않다. 이는 "모든 수식어(지정어, 부가사, 한정사, 보충어)는 최대투사라야 한다"는 수식어 최대투사 제약(modifier maximality constraint)³⁰⁾에

28) H. Koopman(1984), *The Syntax of Verbs*, Foris, p. 86.

29) Andrew Radford(1988), *op. cit.*, p. 503

30) T Stowell(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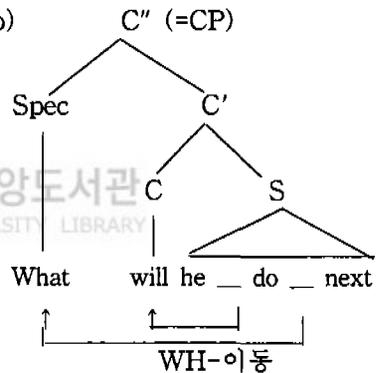
어긋나므로 변형 규칙의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Chomsky(1986)가 수정 제시한 견해³¹⁾에 따라 기존의 S'(S-bar) 절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S를 S'(S-bar)의 핵(head)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보문자를 S'의 핵(head)으로 보고, 보문자에 이끌리는 문 S를 보문자의 보충어(complement)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보문자(=C)와 그의 보충어 S는 병합되어 보다 상위 계층인 C'를 이룬다. 이때 C'는 지정어(specifier : SPEC)와 병합되어 최대투사인 C''(C의 double-bar, 즉 CP)로 확장된다. 따라서 C''로 과거의 S'를 대신케 하여야 한다(C''=CP=S'). 여기서 C'의 지정어는 기저구조에서 이미 생겨 난 XP라 하고 절이나 문에서는 평소 비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XP란 NP, PP, AP, ADVP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 변이형이다.

(68) a)

[CP_[SPEC What] [C will] [S he __ do __ next]]?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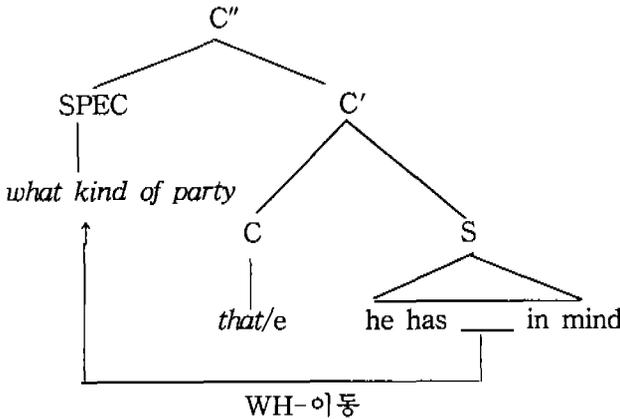
위의 수형도에서 보듯이 wh-요소가 wh-이동에 의하여 앞으로 이동해 비어있는 C-지정어 자리를 메우고 있다. 이를 대체작용(substitution operation)이라 한다. 이처럼, wh-이동이란 wh-구를 C-지정어 위치로 옮김을 뜻한다.

한편, 이 논증이 보편문법으로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65c)와 (67)의 경우를 들어 수형도로 그리면 각각 다음과 같다.

31) Noam Chomsky(1986), *op cit.*, pp 2~6.

(71) a) I wonder [_{C'} what kind of party (% that) he has in mind]

b)



그렇다면, wh-요소는 왜 C-지정어의 위치로 이동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Lasnik(1995)은 wh-이동이 문구성요소들 사이의 자질 점검을 해야 하는 고도의 이타심원리(enlightened self-interest; altruism)에 의해 행해진다고 했다.³³⁾ 그에 의하면 의문문에서 보문자는 강한 핵(head)의 특성을 지니므로 조동사나 be 동사가 보문자를 채우기 위해서 I 자리에서 C로 I-이동된다. 이때, 의문문의 보문자는 wh-지정어 자질을 갖고 있어서 이를 점검(checking)하기 위하여 본래 wh-자질을 갖는 wh-요소인 what이 이동되는데, 이 경우 점검은 지정어(C-specifier)와 CP의 핵(head)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부적인 '지정어-핵'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Chomsky(1995)의 최소이론에서의 wh-이동은 의문사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가서 보문자의 [WH]자질이 그 이동해 간 의문사에게 방출되도록 하고, 동시에 그 이동해 간 의문사는 보문자로부터 [WH] 자질을 점검 받아서 C-지정어 자리에 오도록 허가된다고 보았다. 영어의 보문자가 갖는 [WH]자질은 강하므로 영어에서는 wh-이동이 생기나 한국어의 경우는 이 보문자의 [WH] 자질이 약하므로 wh-이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³⁴⁾

(68)에서 what와 보문자는 CP내에 있고, 보문자 내의 [WH]지정어 자질은 C-지정어 내 what의 원래 [WH] 자질을 점검한다. 그 다음 보문자 내 지정어

33) H. Lasnik(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p. 33.

34) 윤만근(1997), 「생성문법론」, 한국문화사, p. 38.

(C-specifier) 자질은 의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다. 그러나 *what*의 원래 자질 [WH]는 LF에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wh*-요소는 C-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보아진다.

3) CP 분석방법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러한 *wh*-이동에 의한 C-지정어 분석에는 Chomsky(1980, 1981)의 전통적인 보문자-부가(adjunction)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

(1) 등위접속관계 설명의 용이

다음 (72a)처럼, 문장의 공통관계 즉, 공유구성성분 등위접속(shared constituent coordination)관계와 (72b-d)처럼, 일반 등위접속관계(parallelism)의 설명을 쉽게 해준다.

- (72) a) I myself am wondering why - **and** I know that all my friends are also wondering why - [*c' didn't he come to the party*] (semi-indirect speech)
b) What [*c' can I do*] **or** [*c' can anyone do*]
c) How long [*c' could Bill not be in the room*] **but** [*c' will you be there*]
d) What [*c' will you give me*] **and** [*c' can I give you*]

위의 예에서 []속의 구조는 계층구조 C-C'-C''에서 C'의 구조로 [C S]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동사 'didn't'와 'can'이 각각 비어있는 보문자 위치로 I-이동하여 생긴 구조다. (72a)는 C'가 앞의 두 개의 'why'에 각각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다. (72b-d)도 C'끼리 대등한 연결관계를 보이며 C-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위치한 *wh*-XP와 각각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언어표현의 경제성을 보이고 있다

(2) 다중 *wh*-구문에 대한 설명 가능

'C-지정어' 분석이 주는 또 하나의 이점은 *wh*-요소가 둘 이상이나 되는 다중 *wh*-의문문(multiple *wh*-questions)에서 하나의 *wh*-요소만 전치된다는 사실을 설

명하는 데에 보다 자연스럽게 쉽다.

- (73) a) He has left what where?
b) What has he left where?
c) Where has he left what?
d) *What where has he left?
e) Who do you think will say what?
f) *What who do you think will say?
g) *What do you think who will say?

위의 (73d)와 (73f)가 비문이 되는 것은 빈 보문자 자리에는 I-이동으로 건너온 조동사 'has'와 'do'가 각각 위치한 상황에서 그 앞 지정어(specifier)의 자리에 wh-구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가 있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C-지정어 위치가 한 요소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소이론에서 고도의 이타심 원리에 따라 wh-이동이 의문문의 보문자 내의 [WH]지정어 자질을 점검하고 삭제하기 위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은 이 다중 wh-의문문에서 왜 하나의 wh-요소만이 전치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³⁵⁾ 첫 번째 wh-요소가 C-지정어 자리로 이동이 되는데, 이때에 의문문의 보문자 내 [WH] 지정어 자질이 점검되어 생략된다. 일단 이라고 나면 한 문장 내의 또 다른 wh-요소가 계속해서 C-specifier의 자리로 이동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wh-이동은 문법적 자질이 점검될 필요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73g)에서 who만 전치되고 what은 안되는 이유는 what보다 who가 보문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경제성 원리에 따라 장거리 이동보다 단거리 이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Radford(1997)는 이것을 최단거리 이동원리(principle of shortest movement)라고 하고 있다.³⁶⁾

이렇게 살펴 볼 때에, 보문자 부가규칙(C-adjunction)이어서 그 성질상 순환성

35) Andrew Radford(1997), *op. cit.*, pp 136~137

36) *Ibid.*, p. 137.

(recursiveness)을 가지는 이 전통적 S'분석으로는 (73)와 같은 다중의문문의 구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C-지정어 분석, 즉 CP분석이 더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을 갖는다.

(3) X"이론과의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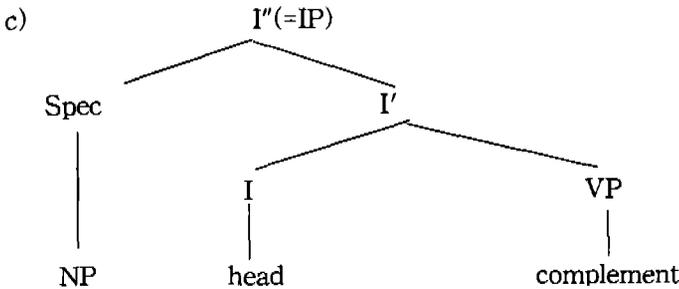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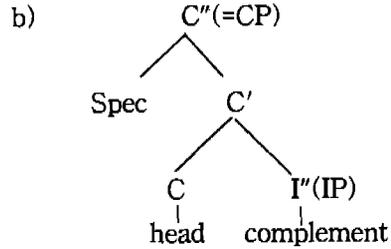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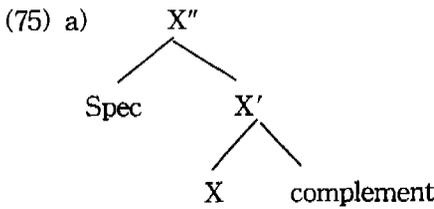
이 CP분석은 1980년대 초기 분석, 보문자 부가규칙에서 보이던 영어 보통질의 예외적 현상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해 주었다. 그동안 NP, VP, AP 등과 같은 다른 범주들은 X"이론에 일치하는데, 이 S' 구조만 최대투사규칙의 적용에 예외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C-지정어 분석으로 해결된다. Chomsky(1986)는 그의 *Barriers*³⁷⁾에서 S와 S'도 내심성 구조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S는 INFL의 최대투사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핵인 I가 VP와 병합하여 I'를 이루고, 다시 이것은 주어인 specifier와 병합하여 IP(=S)인 I"로 확장하게 된다.³⁸⁾ 이 경우 C-specifier가 NP, AP, PP, ADVP 등으로 채워지는 것과는 달리 I-지정어는 주어인 NP요소로만 채워진다. 한편, I와 C는 단어층위인 기능적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서 보충어 규칙, 지정어 규칙, CP 그리고 IP 규칙을 설정한다면 (74)와 같이 된다.

- (74) a) $X' \rightarrow X YP^*(YP : \text{complement}; 0 \leq * \leq 2)$ (generalized complement rule)
 b) $X'' \rightarrow ZP X'(ZP : \text{specifier})$ (generalized specifier rule)
 c) $C'' \rightarrow ZP C'(ZP : NP, AP, ADVP, \text{ or } PP)$ (maximal projection of COMP)
 d) $I'' \rightarrow NP I'$ (maximal projection of INFL)

(74)의 X-(double) bar 체계를 I와 C를 핵(head)으로 생각하여 최대투사를 도출하면 다음 (75)와 같이 된다.

37) Noam Chomsky(1986), *op. cit.*, p. 3.

38) 양우진(1996), 「GB이론」, 한신문화사, p. 31



X-(double) bar 체계에서 지정어나 보충어는 수식어 최대투사 및 보충어 최대투사에 의하여 어휘범주인 어떤 핵(head)의 최대투사라야만 한다. 어휘범주와 마찬가지로 비어휘범주인 굴절소 INFL과 보문자 COMP도 중간투사나 최대투사가 되었을 때에 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 결과, 최대투사범주들은 핵을 중심으로 하는 내심적(endocentric) 구조를 갖게 된다. 여기서 “모든 구는 핵(head)과 그 (형식적) 기능이 같아야 한다”는 내심성제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76) 내심성 제약(ENDOCENTRICITY CONSTRAINT)

All constituent structure rules are of the form :

$$X^n \rightarrow \dots X^m \dots (n \geq m)$$

where $n \neq m$, if ... is null (i.e. if X^n is non-branching).

그리고, ‘규칙확대에서 수식어가 되는 비핵요소는 그 자체가 어떤 범주의 최대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Stowell(1981)의 수식어 최대투사제약(modifier maximality

39) Andrew Radford(1988), *op. cit.*, p 262.

constraint)⁴⁰⁾에 따르면, 수식어, 즉 지정어(specifiers), 부가어(adjuncts), 한정어(attributes), 보충어(complements)는 어떤 범주 NP, VP, PP 등의 최대 투사가 되어야 한다.

(77) 수식어 최대투사 제약(MODIFIER MAXIMALITY CONSTRAINT)

Every non-head term in the expansion of a rule must itself be a Maximal Projection of some category.

(76)과 (77)에 따라 (75)의 보충어와 지정어는 각 범주 X, C, I의 최대투사가 되고 있다. 보통절이나 예외절을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보통절이 CP신분이고, 또 예외절이 IP신분이므로 C나 I의 최대투사가 되어 X-(double) bar 체계의 일반원리를 만족시키게 된다. 이것은 모든 절에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⁴¹⁾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78)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Lexical requirements (viz. categorial, subcategorization, and thematic properties) and structural requirements (viz. the requirement that a Clause should have a Subject) must be uniformly satisfied at all syntactic levels).

이렇게 수정된 CP분석은 보편문법의 이론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해준다.

3. 문구조 신분 재설정

앞의 절에서는 S'구조에 대해서 보통절을 중심으로 논했다. 앞으로는 예외절도 포함해 기존의 분석 문 S를 검토하겠다. 문 S가 보통절(ordinary clauses)에서 보

40) T Stowell(1981), *op cit.*, p. 70

41) Andrew Radford(1988), *op. cit.*, p. 583.

문자 COMP의 보충어(complement)로서의 기능을 하고, 예외절(exceptional clauses)에서는 동사 V의 보충어가 된다. 이제 문 S에 관해 앞의 절과 같은 맥락에서 문 S 구조의 신분을 재 설정할 필요를 논하겠다. (77)의 수식어 최대투사 제약(Modifier Maximality Constraint)에 따라 보충어는 항상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 category: $X' \rightarrow X YP^*$)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썼던 S라는 범주는 그 자체가 단어층위인 최초의 범주(primitive category)일 리가 없다. 그보다는 보충어 최대투사원리에 의하여 보문자 COMP나 타동사의 보충어인 S는 그 자체가 어떤 단순한 어휘범주의 투사일 것이다. 그러면 이때 그 범주가 무엇인지 다음 각 괄호 안의 보통절과 예외절을 통해 살펴보겠다

- (79) a) They are anxious that [*Mary should go there*]
 b) They are anxious for [*Mary to go there*]

위의 []속의 (79a)가 한정절(finite clause)임에 반해 (79b)의 경우는 비한정절(infinite clause)이다. 이렇게 그 차이를 구별케 하는 것은 should와 to로 표현되고 있는 INFL(I)인 것이다. (79a)가 서법 조동사(modal auxiliary) 'should'를 포함하는 한정적(finite) INFL을 가지면서 한정절이 되었다면, (79b)는 부정사를 만드는 불변화(소)사 'to'를 포함하는 비한정적(non-finite) INFL을 가지고서 비한정절이 되고 있다. 요컨대, [\pm INFL] 자질에 따라 절의 성격도 한정적이 되거나 비한정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INFL를 최대투사된 S의 핵으로 보게 된다.

- (80) a) I believe [_S *the President to be right*]
 b) I've never known [_S *the Prime Minister to lie*]
 c) They reported [_S *the patient to be in great pain*]
 d) I consider [_S *my students to be conscientious*]

위의 각 문장에서 S는 보충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예들 괄호 속의 예외절 S는 [-INFL]의 자질을 갖고 to로 표현되는 I의 최대투사가 되고 있어서 보충어 최

대투사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최대투사인 IP구조는 영층의 범주(zero-level category) I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충어를 가지면서 I'로 중간 투사되고, 다시 I'는 오직 하나의 지정어 NP를 가지면서 I''로 최대투사되고 있다. 이렇게 I가 S의 궁극적인 핵(head)이 된다면 S는 IP(=I'')가 된다. 이 경우 I는 그의 보충어 VP와 함께 I'성분을 이루고, 이것은 다시 지정어인 주어 NP와 함께 I''로 최대투사된다. 이와같이 S도 I의 최대투사라는 가정으로 해서 모든 통사범주가 핵의 투사(projection)라고 하는 일반화를 유지하면서 V와 I가 각각 별개의 통사적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핵이 되는 I가 어휘수준의 범주라는 IP분석은 I가 최저층에 놓임으로써 오직 핵인 N, A, V, P와 같은 어휘범주(word-categories)만 최저층에 놓인다는 기존의 이론에 일치를 보인다. 그리고, IP분석으로 해서 범주이론(theory of categories)에서 전통적인 S분석이 보였던 비대칭(asymmetry)의 문제를 IP분석은 '어휘범주는 어느 것이든 투사를 허용해 X'와 X''(=XP)를 갖는다'고 하는 X-(double) bar이론을 충족시켜 해소하고 있다.

주어부(subject)와 술부(predicate)로 된 절 요소에 I라는 다른 구성성분요소를 갖는 구조를 보이는 전통적 S분석으로는 한 문장이 3분지(3 branched) 구조로 3개의 직접구성성분요소[NP I VP]를 갖는다. 이에 비해 IP분석은 하나의 문장이 2분지 구조로 2개의 직접구성성분요소 [NP I-bar]로 되어 있다. IP분석에서는 I와 VP를 합하여 I'를 이루고 있는데, S분석에서는 이에 상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은 분석인가를 검증해 보겠다.

먼저,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IP분석이 더 설명적 타당성을 갖는다. 영어 문장의 억양(intonation)면에서 주요 휴지(major break)는 주어 NP 다음에 온다.⁴²⁾

(81) The man next door/ may be moving house soon.

위의 끊어 읽기의 방식은 NP 'The man next door'와 I-bar 'may be moving house soon'로 나누는 IP분석과 일치한다. 따라서 I인 'may'의 앞과 VP인 'be

42) Noam Chomsky(197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Plenum, p. 229

moving house soon'앞에서 모두 두 번 끊어 읽도록 유인하는 S분석보다 우수하다고 보아진다.

두 번째는, 등위접속관계(coordination)에서 IP분석이 더 우수하다.

(82) I'm anxious for you [I' to enter the race] and [I' to win it]

위에서 보듯이 [I VP]로 표현되는 I'(=I-bar)끼리 등위접속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S분석으로는 위와 같은 예문이 생성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게다가 IP분석은 공유구성성분(shared constituent)의 등위접속관계(coordination)도 설명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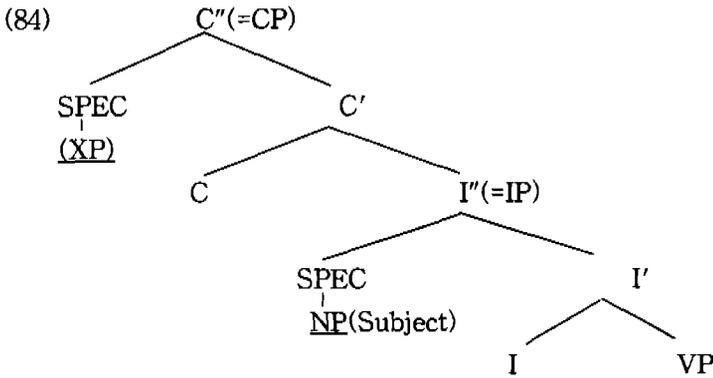
(83) Jean wants Paul - and Mary wants Jim - [I' to enter the race]

공유구성성분인 'to enter the race'는 I'로서 [I VP]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공유구성성분은 'Jean wants Paul'과 연결이 되고 'Mary wants Jim'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따라서 IP분석이 우수하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이 IP분석에 관해서는 Chomsky(1986)도 *Barriers*⁴³⁾에서 'S는 영층범주(zero-level category)가 아니라 I가 최대투사된 IP(=I'=S)이다' 라고 밝혔다.⁴⁴⁾ 보통절과 함께 보문자 COMP가 없고 굴절소 INFL만을 갖는 문장인 예외절을 포함한 문에서의 이 IP 분석과 보문자와 굴절소를 모두 갖는 보통절에서의 CP분석을 통합한 수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43) Noam Chomsky(1986), *op cit.*, pp. 2~3

44) Andrew Radford(1988), *op cit.*, p. 511.



(84)에서 (XP)는 지정어(specifier) 자리로 수의적이다. 여기서 괄호는 생략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는 또 wh-이동이 있는 문에서는 wh-NP가 이동되는 자리(landing site)가 된다. 그리고 I'' 속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NP는 절의 주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보통절이라고 해서 늘 외현적 보문자와 외현적 지정어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 세 부류, 이를테면 외현적 COMP만 없는 경우와 wh-XP라는 외현적 SPEC만 없는 경우, 그리고 이 둘 모두가 없는 경우가 있다.



(85) a) I wonder [*which one will she give him*]. (semi-indirect speech)

b) I wonder [*which one she will give him*]. (indirect speech)

위의 예에서 괄호 속의 문들은 모두 보통절(ordinary clauses)이다. (85a)의 경우는 조동사 'will', 즉 굴절소 INFL이 I-이동하여 보문자 COMP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85b)의 경우는 I-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보문자 자리가 빈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두 문장 모두 wh-구 'which one'이 지정어 자리에 와서 wh-NP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86) a) I knew [*that he would resign from his post*].

b) I knew [*he would resign from his post*]

위의 두 예문의 공통점은 선택적인 wh-XP라는 C-지정어가 없다. 두 예문의 차이점은 (86a)는 보문자 'that'을 갖고 있으나, (86b)는 갖고 있지 않다. (86b)의 []만 따로 떼어 내면 다음과 같이 독립절(independent clause), 즉 단문의 구조가 된다.

(87) He would resign from his post.

CP분석에 따르면 지정어는 선택적(optional)이다 그러나 핵(head)은 내심성제약(endocentricity constraint) 조건에 따라 필수적(obligatory)이다 따라서 보문자 COMP도 핵이므로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때로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통절에서는 내현적 보문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8) a) Jane told me [C^o who [I^v [NP ____][I^v was present at the lecture]]].

b) Tom told the officer [C^o who(m) [I^v [NP he][I^v had hired ____]]].

c) John mentioned the time [C^o when [I^v [NP Jane][I^v heard the bell ring ____]]].

d) [C^o [SPEC How many employees][C did][I^v [NP Tom][I^v [I ____] introduce ____ to the visitors]]]?

(88a)에서 I''(=IP)의 I-지정어인 주어 who는 wh-이동에 의하여 C-지정어 위치로 이동된 것이고 (88b)에서는 I'내 hired의 보충어인 who(m)이 wh-이동에 의하여 C-지정어 위치로 이동되고 있다. (88c)에서 I'내의 부가어인 when은 wh-이동에 의하여 C-지정어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88d)에서는 I'내 introduce의 보충어인 'how many employees'가 wh-이동에 의하여 C-지정어 위치로 이동되고, did는 C''의 보문자 자리로 이동되고 있어서 이동된 wh-요소의 착지점과 이동된 I의 착지점은 각기 다르다.

IV. WH-이동에 따른 제약

앞에서 wh-요소가 wh-이동에 의하여 C-지정어의 위치로 이동해 가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동이란 변형규칙은 그 힘이 너무 커서 비문법적인 문장도 생성해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 생성력(over-generation)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wh-이동에 대한 제약의 여러 조건들을 흔적과 결속, 공범주원리, 하위인접조건, 엄밀순환조건과 관련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흔적과 결속

1) wh-이동과 흔적

원래 wh-이동은 wh-요소를 이동시키는 이동규칙을 총칭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논항 위치(\bar{A} -position)에 도달하는 모든 이동규칙을 총칭한다. 따라서, wh-이동으로 간주되는 이동규칙은 의문사 이동, 관계사 이동, 감탄사 이동이다. 이들을 wh-이동이라는 한 가지 이동으로 통합하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동규칙으로서 통사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wh-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착점이 보문자 앞인 비논항 위치이므로 출발점의 흔적 t 는 변항(variable)이다. 그리고 변항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모든 명사는 격을 받아야 한다”는 격여과(case filter)⁴⁵⁾에 따라 원칙적으로 격이 있어야 한다. 둘째, wh-이동으로 생겨난 흔적 t 는 변항이므로 지시적 표현(referential expression)이다. 따라서 “지시적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속조건(Binding Condition)⁴⁶⁾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모든 이동규칙의 적용으로 생겨난 흔적은 “흔적은 고유지배(properly governed)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⁴⁷⁾를 준수해야 한다.

45) Noam Chomsky(1981), *op. cit.*, p. 175.

46) *Ibid.*, p. 188.

- (89) a) *Who_i did it seem [_{S'} t_i to go]?
 b) *Who_i did he love t_i?
 c) *How_i did you leave [_{PP} before fixing the car t_i]?

위 (89a)는 wh-이동의 흔적인 t_i가 적절한 격이 없어 격 여과에 걸리기 때문에 비문이다. (89b)는 변항인 t_i가 그 선행사 who의 성분지배영역 안에서 he에 의해 국부적으로 논항결속(A-bound) 되었기 때문에 비문이다. (89c)에서는 wh-이동에 의해 생긴 t_i가 장벽 PP 때문에 고유지배되지 않아 공범주원리를 어기므로 비문이 되고 있다.

2) 흔적이동원리

문장의 기저구조에서 wh-요소가 이동을 거쳤을 때 그 자리에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 착지점(landing-site)도 중요하지만 이동되어 가면서 비는 자리(extraction site)도 wh-이동을 살피는 데에는 중요하다. 여기서 다루려는 흔적이동원리는 어떤 범주(Xⁿ)가 이동될 때에 그 범주는 자신의 옛 자리에 't_i'나 'Xⁿ, e'와 같은 동일지표된(co-indexed) 흔적(trace)을 남긴다는 원리다. 이때 이 동일지표된 흔적은 이동된 구성요소인 선행사(antecedent)와 함께 연쇄(chain)를 이룬다. 이때 격(case)이나 일치(agreement) 등과 같은 문법자질들은 자유롭게 연쇄의 연결(links)사이에 전달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논항 자리(\bar{A} -position)로 이동된 wh-요소는 논항 자리에 있는 그 흔적의 문법 자질을 계승받게 된다. 앞에서 wh-이동의 근거에서 다루었던 '조동사 축약'과 'wanna 축약'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러한 원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 (90) a) Should we have called the police?
 b) *Should we've called the police?
 c) [_{IP} We should have called the police]

47) *Ibid.*, p 250.

- (91) a) Who would you want to help you?
 b) *Who would you wanna help you?
 c) [_{IP} You would want who to help you]

(90b)와 (91b)가 비문인 것은 그들의 D-구조인 (90c)와 (91c) 각각에서 I-이동과 wh-이동되는 요소 should와 who가 앞으로 이동되었는데, 그 이동이 일어난 각 위치에 남는 공범주(empty category)인 흔적이 그 앞 뒤 두 문요소의 축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흔적은 일치, 동사의 하위범주화, 그리고 이동된 선행사인 wh-요소의 격과 의미역 문제도 설득력있게 처리하도록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인칭과 수의 일치현상을 보기로 하겠다.

- (92) a) *Which one_i do you think [_{CP} C t'_i seems [_{IP} t_i to be the best candidate]]?*
 b) [_{NP} e]_[C e] You *do* think [_{CP} C [_{NP} e]_[t_i e] [_{VP} seem [_{IP} *which one* to be the best candidate]]]

(92a)의 심층구조인 (92b)에서 'which one'은 예외절 IP의 주어로 있다가 NP-이동에 의하여 seem이 있는 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되고, 이어 그것이 wh-이동에 의하여 think가 있는 절 앞의 비어있는 NP인 C-지정어 위치로 이동된다. 이밖에도 do는 I-이동에 의하여 주절의 I로부터 빈 C의 속으로 이동하고, seem은 V-이동에 의하여 그 절의 VP로부터 비어있는 I위치로 이동한다. 여기서 3인칭 단수 which one은 서술명사 candidate과 서술동사 seems와 인칭과 수에 있어서 모두 일치한다. 그래서 (92a)가 된다. 이처럼 흔적의 개념을 논하지 않으면 제II장에서 언급했던 복잡한 일치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92)에서 두 개의 wh-흔적의 선행사가 3인칭 단수 'which one'이므로 두 개의 wh-흔적은 모두 3인칭 단수가 되어, 서술어 seems와의 수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를테면, 서술명사 candidate이 단수이므로 그 주어인 wh-흔적 (t_i)도 단수가 되며, 서술동사 seems는 단수인 t_i에

서 이동해 와서 생긴 주어 wh-흔적(t')과 수가 일치하므로 역시 단수가 된다. 이처럼 흔적의 개념을 두는 것은 wh-이동과 관련해서 형태론적 특질인 일치(agreement)나 격표시(case-marking)의 설명에 유리하다.

3) 흔적에 대한 성분통어 조건

이제까지 살펴온 이동규칙들은 I를 C로 이동시키는 I-이동이나 IP내의 한 wh-요소를 IP 밖인 CP내로 이동시키는 wh-이동에서처럼 어떠한 요소를 하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 즉 인상시키는 규칙들이었다. 이처럼, '이동되는 문구성성분은 동일지표되는 흔적을 남긴다'는 흔적이론을 가정한다면, 이동되는 요소가 그의 흔적의 위치보다는 상위절점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동되는 구성요소는 S-구조에서 그의 흔적을 성분통어한다'는 성분통어조건⁴⁸⁾을 제시할 수 있다.

(93) 성분통어조건(C-COMMAND CONDITION)

A moved constituent must c-command(=*constituent-command*) each of its traces at S-structure(X *c-commands* Y just in case the first branching node dominating X dominates Y, and neither X nor Y dominates the other)

'이동된 범주인 선행사(antecedent)는 자신의 흔적(trace)을 성분통어해야 한다'는 조건의 의미를 Chomsky(1986)는 " α 가 β 를 관할하지 않고 α 를 관할하는 모든 γ 가 β 를 관할하는 경우, α 는 β 를 성분통어한다"고 성분통어를 정의하고 있다.⁴⁹⁾

(94) α c-commands β iff α does not dominate β and every γ that dominates α dominates β .

위의 (94)에서 γ 는 첫 번째 분지 절점(first branching node)인 중간투사범주 X-bar(= X')가 될 수도 있고, 최대투사범주 XP가 될 수도 있다. 중간투사범주로 해

48) Andrew Radford(1988), *op. cit.*, p. 564.

49) Noam Chomsky(1986), *op. cit.*, p. 8.

석되면 ‘성분통어(c-command)’로 보고, 최대투사범주로 해석되면 ‘최대통어(m-command)’로 보았다. Chomsky(1986)는 성분통어를 편의상 ‘최대통어’라 하여 지배의 정의에 포함시켰다.⁵⁰⁾ 이 조건은 문구성성분을 상승 이동시킬 수는 있으나 하강 이동시킬 수는 없다는 문생성규칙의 특성을 잘 나타내게 해준다. wh-이동인 인상 이동임은 앞에서 몇 가지 근거로 많이 밝혀졌다. I-이동의 경우도 다음 (95a)의 묘출화법의 경우를 보듯이 적법한 인상 이동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93b)는 보문자 자리에 있던 whether가 I의 자리로 후치 이동되어 비문이 되고 있다.

- (95) a) I wonder [c will] they [I e] like it.(semi-indirect speech)
 b) *I wonder [c e] they [I whether] like it.

한편, 성분통어의 관점에서 외치변형(extraposition)을 설명하면 외치되는 요소는 성분통어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 조건은 설명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외치문제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 (96) a) John will [VP [VP call [NP people t_i] up] L [CP_i who are from London]].
 b) [IP [NP Nobody t_i] would ride with John] [CP_i who knew him].
 c) *[IP [NP Nobody t_i] [I_r would [VP [VP ride with John][CP_i who knew him]]]].

(96a)는 목적어의 일부가 외치된 것이고, (96b)와 (96c)는 주어의 일부가 외치된 것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목적어 NP로부터 외치된 CP는 VP내의 VP에 부가(adjunction)되나, 주어 NP로부터 외치된 CP는 VP가 아닌 IP에 부가된다. (96a)와 (96b) 두 예문의 비대칭성(asymmetry)을 이해시키기 위해 성분통어조건으로 두 예문을 살펴보면, 위 (96a)와 (96b)의 두 예문은 후치된 관계사절 CP_i가 각각 그 자신의 흔적(t_i)을 성분통어하고 있어 정문이 되고 있는데 대해, (96c)는 VP내의 VP에 부가된 관계사절 CP_i가 자신의 흔적(t_i)을 성분통어하지 못해 비문이 되고 있다.

50) *Ibid.*, p. 8

2. 공범주원리

원래 공범주(empty category)는 음성내용을 갖지 않는 범주를 말한다. 명사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명사적 대응사인 PRO, NP-흔적, 변항(variable)인 wh-흔적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범주원리는 공범주 중 흔적에 부과되는 조건으로 지배이론(government theory)의 중심적 원리이다. Chomsky(1981)는 “흔적은 고유지배(properly governed)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범주 원리와 고유지배(proper governmen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⁵¹⁾

(97) i) Empty Category Principle : every trace must be properly governed.

ii) Proper Government · α properly governs β if and only if $\alpha (= \pm N, \pm V)$ governs β (and $\alpha \neq AGR$)

후에 다시, 고유지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⁵²⁾

(98) Traces must be properly governed :

A properly governs B iff A theta-governs B or A antecedent-governs B.

즉, 'i) 의미역(또는 어휘) 고유지배 : α 가 β 를 지배할 때, α 는 어휘범주 N, V, A, P이다'와 'ii) 선행사 고유지배: α 가 β 를 지배할 때, α 와 β 는 동일지표를 갖는다'라는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때 α 는 β 를 고유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wh-이동규칙의 적용결과 생기는 흔적들은 반드시 고유지배 받는다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이 원리는 고유지배를 받지 않는 흔적(t)이 있으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됨을 알려준다.

51) Noam Chomsky(1981), *op. cit.*, p. 250.

52) Noam Chomsky(1986), *op. cit.*, p. 17.

(99) a) *Who_i do you love t_i?*

b) [_{CP} [_{SPEC} *Who_i*] [_{C'} [_C *do_j*] [_{IP} [_{NP} *you*]_{tr} [_I *t_i*] [_{VP} [_V *love*]_{[NP t_i]]]]]]?}

c) [_{CP} [_{SPEC} *Who_i*] [_{C'} [_C *do_j*] [_{IP} [_{NP} *you*]_{tr} [_I *t_i*] [_{VP} *t'_i [_{VP} [_V *love*]_{[NP t_i]]]]]]]]?}*

(99b)에서 어휘범주 *love*는 자신을 관할하는 ‘첫 번째’ 최대투사 VP가 *t_i*를 관할하고(dominating) 있으므로 *t_i*를 최대통어한다. 그리고 *love*와 *t_i* 사이에 장벽이 되는 최대투사가 없다. 따라서 *love*는 *t_i*를 지배(govern)한다. 그러므로, *love*는 *t_i*를 의미역(또는 어휘) 고유지배하고 있다. 또 한편으론, *who*는 *t_i*와 동일지표된다. 게다가 *who*를 관할하는 ‘첫 번째’ 최대투사인 CP가 *t_i*를 관할하므로 *who*는 *t_i*를 최대통어한다. 이렇게 *who*와 *t_i*사이에는 장벽이 없어서 *who*는 *t_i*를 선행사 고유지배를 한다. 여기서, *who*와 *t_i*사이에는 장벽이 되는 것은 IP를 장벽의 개념에서 제외하므로 VP뿐이다. VP는 비어휘범주인 I의 보충어이기 때문에 어휘표시를 받지 못해서 장벽이다. 그러나 VP의 장벽성을 없애기 위해 어떤 wh-요소는 이동할 때에 (99c)처럼 VP를 넘어 VP에 인접한다. 결국 VP는 이동구문에선 장벽이 못된다. 그래서 *t_i*는 선행사 *who*에 의해서 선행사 고유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유지배 개념에서는 이렇게 의미역(또는 어휘) 고유지배와 선행사 고유지배가 개념상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다

3. 하위인접조건

하위인접조건은 Chomsky(1973)가 처음 제시한 조건으로 ‘어떤 이동 규칙도 둘 이상의 NP나 S(=IP)와 같은 한계교점(bounding node)을 한꺼번에 넘어서는 안 된다⁵³⁾는 제약이다. 그래서 한계이론(bounding theory)이라고도 한다. 무엇이 한계교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안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Rizzi(1986)의 제안에 따라, 영어에서는 NP와 IP(=S)가 한계교점이 되고 있다.⁵⁴⁾

53) Noam Chomsky(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Anderson, S. R and Kiparsky, P. (eds.), Holt, Rinehart and Winston, p. 250

54) 윤만근(1997), 전제서, p. 379

모든 이동변형은 하위인접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적(bounded)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비한계적인(unbounded) 것으로 보이는 wh-이동도 CP의 지정어 위치에서 상위 CP의 지정어 위치로의 계속적 순환이동의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100) [_{CP} *What* did [_{IP} you say [_{CP} *t'* that [_{IP} John would do *t*]]]]?

(100)에서 *what*이 한번에 문두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동은 한계교점 IP를 한꺼번에 두 개 넘게 되어 하위인접조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포문의 C-지정어 위치(*t'*)로 이동한 다음, 거기에서 주절의 C-지정어 위치로, 즉 (100)의 형태가 되도록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도출과정은 각각의 이동에서 IP를 하나씩만 넘으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이론은 Ross(1967)를 비롯한 1960년대 제기된 ‘어떠한 규칙도 복합명사구 안에 있는 요소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복합명사구제약(complex NP constraint), ‘어떠한 규칙도 문장주어 안에 있는 요소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문장주어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 ‘등위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요소도 그 구조로부터 이동될 수 없다’는 등위구조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큰 명사구의 왼쪽에 있는 명사구들은 그 큰 명사구로부터 이동되지 못한다’는 좌분지제약(left branch condition), ‘어느 한 변형규칙의 구조를 기술할 때 범주 A라고 하면, 그 A는 그 구조의 최상위범주 A를 의미한다’는 상위범주우선원칙(A-over-A principle), ‘wh-구에 의해 유도되는 절 안의 어떤 요소도 그 절 밖으로 이동될 수 없다’는 wh-섬제약(wh-island constraint)을 통합시켜 보다 간단하게 일반화시켜 나타낸 것이다.⁵⁵⁾

(101) a) *Who(m)_i do [_{IP} you believe [_{NP} [_{NP} the claim][_{CP} that [_{IP} John saw *t*]]]]?

b) *What_i would [_{NP} [_{CP} for [_{IP} me to give up *t*]]] be a pity

55) 이익환의 4명(1995), 「현대영어학개관」, 한신문화사, pp. 279~280

- c) *What_i might [_{IP} John wonder [_{CP} whether [_{IP} Mary hid t_i]]]?
 d) [_{CP} Who(m)_i did [_{IP} you see_{[NP} a picture of t_i]]]?

위 (101a)와 (101b)의 who(m)과 what이 wh-이동될 때 두 개의 한계교점 IP(=S)와 NP를 건넜으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기고 있고, (101c)도 역시 what가 한계교점인 IP를 두 개를 넘고 있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Chomsky(1973)⁵⁶⁾의 하위인접조건은 (101d)가 적합한 문임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01d)에서는 who(m)이 두 개의 한계교점 NP와 IP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homsky(1986)는 *Barriers*(1986)에 와서 모든 최대투사범주(NP, IP, CP, VP)를 한계교점인 장벽(barriers)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동되는 요소가 한번에 두 개 이상 장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수정했다⁵⁷⁾.

어떤 범주가 어떤 구조에 나타나면 지배 및 이동을 막게 되는데, 그와 같은 범주를 지배 또는 이동에 대한 장벽이라고 부른다. 지배는 이동에 비하여 더욱 국부적인(local) 관계이므로, 장벽이 하나 존재하면 지배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동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장벽을 한 번에 넘으면 문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Chomsky(1986)는 여겼다.

장벽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 γ 가 L-표시(어휘표시)⁵⁸⁾되지 않고 β 를 관할하면, γ 는 β 에 대한 차단범주가 된다’는 차단범주(blocking category)개념을 써서 장벽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102) γ is a barrier for β iff (i) or (ii)

- i) γ immediately dominates δ , δ a blocking category for β ;
- ii) γ is a blocking category for β , $\gamma \neq \text{IP}$

56) Noam Chomsky(1973), *op. cit.*, p 250

57) Noam Chomsky(1986), *op. cit.*, p. 30.

58) L-표시(L-marking): α 가 β 를 의미역 지배하는 어휘범주이면, α 는 β 를 L-표시한다

59) *Ibid.*, p 14.

(103) γ is a blocking category for β iff γ is not L-marked and γ dominates β .

위 (102)와 (103)를 쉽게 풀이하면 어휘범주에 의해서 의미역 지배를 받지 않는 모든 최대투사는 차단범주가 되며, CP와 IP를 제외한 모든 차단 범주는 자동적으로 장벽이 된다. 그런데, CP처럼 IP는 비록 고유장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단범주를 직접 관찰하면 장벽이 된다. 따라서 최대투사인 IP는 CP와 함께 고유장벽(inherent barrier)은 될 수 없으나, 단지 다른 차단범주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 차단범주로부터 장벽성을 상속받아 계승장벽(inherited barrier)이 된다.⁶⁰⁾

(104) a) Who_i do [_{IP} you [_{VP} believe [_{IP} t_i to be intelligent]]]

b) Who_i do [_{IP} you [_{VP} t'_i [_{VP} believe [_{IP} t_i to be intelligent]]]]]

c) Who do you believe to be intelligent?

(104a)에서 Who_i가 t_i 를 선행사 지배하려면 이들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104a)에서 장벽이 될 수 있는 최대투사로는 상위 IP, VP, 하위의 IP가 있다. 하위의 IP는 believe에 의해서 L-표시되므로 차단범주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장벽도 될 수 없다. 그러나 VP가 어휘범주가 아닌 I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L-표시를 받지 못해서 차단범주가 되어 장벽이 된다. 또한 상위 IP도 차단범주인 VP를 직접 관찰하고 있으므로 장벽성을 이어받게 된다. 따라서 Who_i와 t_i 사이에는 두 개의 장벽이 가로 놓여 있으므로 전자가 후자를 선행사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104a)가 적절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Chomsky(1986)는 (104a)에서 who_i가 t_i 위치에서 직접 현재 Who_i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04b)처럼 일단 VP에 부가(adjunction)된 다음 그 t'_i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⁶¹⁾ 따라서 (104a)의 D-구조는 (104b)가 된다. (99)에서 예로 살폈듯이 부가의 특성은 최대투사범주가 논항 위치인 NP나 IP로 이동하지는 못하고, 비논항(non-argument) 위치인 VP로의 이동은 가능함을 나타내

60) 고태홍(1997), "NP-이동", 「언어학연구」, 제2호, 제주언어학회, pp. 19~20

61) Noam Chomsky(1986), *op. cit.*, p 4.

고 있다. 즉, 부가는 비논항인 최대투사범주에만 가능하다. (104b)에서 IP는 스스로 장벽이 될 수 없으므로 일단 VP만 차단범주가 되지 않으면 상위 IP도 장벽성을 풀려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04c)는 올바른 문장이 된다. (101d)를 다시 보이는 아래 (105a)는 wh-이동에서 VP에서만 부가가 가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요소가 이동 중에 어떠한 최대투사범주에 부가되면 그 최대투사범주는 그 장벽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101d)도 장벽의 개념으로 해결을 보게 된다.

- (105) a) [_{CP} Who(m)_i did [_{IP} you [_{VP} [_{VP} see [_{NP} a picture of t_i]]]]]?
 b) *Who_i did [_{IP} [friends of t_i] see John]?
 c) *Who_i did [_{IP} they leave [before speaking to t_i]]?

위 (105a)는 wh-요소가 보충어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정문이다. 이에 대해 (105b)와 (105c)는 보충어가 아닌 주어와 부가어로부터 이동되었기에 비문이 된 문들이다. 그런데, 과거 S 및 NP만을 한계교점으로 보던 분석에서는 (105b)만이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장벽이론’에서는 장벽 두 개 이상을 넘어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105b)에서 주어가 L-표시가 되지 않기에 차단범주이며, 동시에 장벽이 되고 또한 주어를 직접 관할하는 IP가 주어의 장벽성을 이어받는데, 결국 두 개의 장벽을 넘어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또한 (105c)에서도 L-표시가 되지 않은 부가어가 장벽이 되고 이를 관할하는 IP가 장벽성을 계승하여 역시 두 개의 장벽을 넘게 되어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게 된다. 그 결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이다.

- (106) a) How_i did [_{IP} you [_{VP} t'_i [_{VP} do it t_i]]]?
 b) Who_i do [_{IP} you [_{VP} t'_i [_{VP} believe [_{CP} t'_i [_{IP} t_i won the race]]]]]]?

위 (106a)에서 t'_i와 t_i 사이의 VP는 장벽이 되지 못하므로 t'_i는 t_i를 지배하고, t'_i와 t_i는 연쇄 동일 지표되어 있다. 그리고 how_i와 t'_i사이의 VP와 IP도 장벽이 되지 않

으므로 how_i는 t_i를 지배하고 how와 t_i'는 연쇄 동일지표되어 있다. (106b)에서도 역시 t_i'뿐만 아니라 t_i'와 t_i도 who_i에 의해 고유지배되므로 '혼적은 고유지배되어야 한다'는 공범주원리(62)를 만족시켜 모두 정문이 되고 있다.

4. 엄밀순환조건

엄밀순환조건은 하나의 도출과정이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순환(cycle)의 단계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보다 이전 단계의 순환으로 되돌아가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이동변형규칙은 상위절(superordinate domains)보다 하위절(subordinate domains)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동변형규칙들은 수형도에서 계층구조를 이루는 문구조의 맨 아래층에서부터 위쪽으로 적용된다. Chomsky(1973)는 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변형규칙과 여러 원리들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⁶³⁾ 한편 이 조건은 Freidin(1978)의 덜 자의적인 흔적소거규칙(trace erasure principle), 즉 “이동된 어떤 구성성분도 다른 구성성분의 흔적을 삭제할 수 없다”⁶⁴⁾는 규칙에서 파생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연쇄는 단일한 격, 단일한 의미역, 등 일련의 문법자질들을 가져야 한다’는 보다 더 일반적인 연쇄 유일성규칙(chain uniqueness principle)⁶⁵⁾하에서 이 엄밀순환조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⁶⁶⁾ 그러면, 다음의 문들이 비문이 되는 이유를 규칙상호작용 차원에서 살펴겠다.

(107) a) *Who might they wonder [CP what he said to]?

b) *To whom might they wonder [CP what he said]?

62) Noam Chomsky(1981), *op. cit.*, p. 250.

63) Andrew Radford(1988), *op. cit.*, pp. 576~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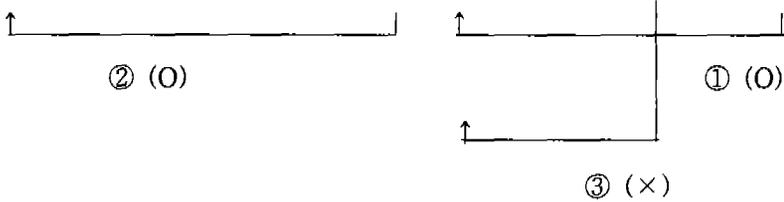
64) *Ibid.*, p. 579

65) *Ibid.*, p. 580

66) *Ibid.*, pp 576~583.

위 (107a)와 (107b)의 기저구조인 (108)에서 하위인접조건을 지키는 이동규칙 적용 순서는 3단계 순서로 다음과 같이 분석되는 듯 보인다.

(108)[_{CP SPEC e C e}[_{IP they might wonder}[_{CP SPEC e C e}[_{IP he said what to who(m)}]]]]



(107a)를 보면, who가 ①과 ②와 같은 순서로 이동할 때에 각각 하나의 한계교점 IP를 넘어 이동하고, 이어 what이 ③처럼 이동할 때에도 한계교점 IP 하나를 넘으므로 이 예문은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지 않고 있다. (107b) 역시 who 대신 to whom이 ①, ② 순으로 규칙적용이 되고 있고, 이어 what이 이동규칙 ③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역시 하위인접조건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 두 문은 비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107)의 예문들이 이동규칙을 적용할 때에 '두 개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거나 같은 규칙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문장을 이끌어 낼 때에 문장의 가장 하위영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이어 상위영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순환의 원리⁶⁷⁾를 위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위의 (108)에서 wh-이동이 적용되는 최하위영역은 오른쪽의 IP이다. 하위절에서 상위절로 ①과 ②의 이동규칙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시 상위절에서 하위절로 내려가서 이동규칙이 적용되는 ③의 경우가 이 순환의 원리를 어겨 비문이 되게 하고 있다. 변형규칙이 적용될 때에 지켜져야 하는 이런 조건을 '엄밀순환조건(strict cyclicity condition)'⁶⁸⁾이라 한다. 이를테면, 이 조건은 문구조상 하위절에서 상위절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7) 이기동의 2인(1995), 「영어통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 216.

68) Adrew Radford(1988), *op. cit.*, p. 578.

V. 결 론

영어에서 wh-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 주로 wh-의문문, 관계사절에서 눈에 띄는 wh-이동은 크게는 NP-이동과 더불어 α -이동으로 통합되면서 변형생성 이론의 큰 논제가 되어왔다. 최근 최소이론에 와서는 연산자이동(operator movement)으로 역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이 wh-이동을 여기서 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논문은 영어에 빈번히 나오는 wh-어 또는 wh-구의 이동표현에 관한 연구로 지배결속이론에 주로 근거하여 생성문법학적 차원의 고찰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 wh-이동에 있어서 wh-요소의 정확한 착지점을 찾아내고,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까지도 만들어 내는 생성이론의 지나친 문장 생성력을 제어하기 위해 가정되는 필수적인 제약조건들을 살피는 데에 있다.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wh-이동을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이러한 이동규칙을 변형이론 속에 설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통사론적, 형태론적, 음운론적,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이어 관계사문을 비롯한 감탄문, 분열문 등에서 wh-이동의 설정 가능성을 살폈다. 여기에서도 wh-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외현적이든 내현적이든 간에 wh-이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III장에서는 이러한 wh-구문 이동에는 어떤 요소가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기에는 단순히 who, when, what, where, why, which, how와 같은 wh-어 뿐만 아니라 절요소를 제외한 wh-어를 포함하는 NP, PP, AP, ADVP도 포함됨을 보았다. 그러나 wh-어를 포함한 모든 XP성분이 wh-이동을 겪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wh-어를 포함하는 VP는 wh-이동을 겪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wh-구의 이동시 착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살폈다. 이 과정에서 전치되는 wh-요소의 궁극적 착지문제는 절의 내부구조에 대한 종전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보통절 S'는 핵인 보문자 COMP가 최대투사된 CP로 재 설정되었고, 아울러 wh-이동시 wh-요소는 대치(substitution)에 의하여 C'의 바로 왼쪽의 비어있는 C-지정어 위치로 인상됨을 논했다. 또 S-bar(=S')를 C-double

bar(=C''=CP)로 재분석하였듯이, 문 S를 핵인 굴절소 INFL이 최대투사된 것으로 분석하여 S가 IP(=I'')임을 논했다.

IV장에서는 wh-이동규칙을 적용할 때에 혼적이론, 하위인접조건, 공범주원리, 엄밀순환조건, 그리고 장벽이론과 같은 제약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wh-이동규칙은 한번 규칙적용에 있어서 NP, IP와 같은 한계교점을 둘 이상 넘어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내재적으로 한계적임(boundedness)을 논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규칙은 상위영역에 적용되기 전에 하위영역에서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Chomsky(1973)의 엄밀순환성조건을 논함으로써 변형생성이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끝으로 검토하였다.

하지만, Chomsky의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1981)이래 보완되어야 할 몇몇 문제가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지배-결속이론이 다소 많은 가설을 그동안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이론들끼리 서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나마 Chomsky(1986)의 *Barriers*는 지배-결속이론이래 다양하게 논의되는 이론의 변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집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는 X-bar 통사론의 핵계층규약을 보문자 COMP, 굴절소 INFL과 같은 비어휘적 범주까지 확대하여 S'와 S를 각각 CP와 IP로 분석하고 새로운 최대투사범주이론에 걸 맞는 새로운 장벽의 개념을 제시해 이 개념으로 지배개념과 하위인접조건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제약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논문에서 보였듯이 여러 제약과 관련해 논한 공범주원리와 하위인접조건은 이론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이외에도 의미역 지배와 선행사 고유지배가 개념상 겹치듯 격이론과 의미역이론의 일부가 중복된다. 무엇보다 보편적 문법규칙이나 원리에는 수반되는 제약조건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 참고 문헌 ▣

- 고태홍(1997), “NP-이동”, 「언어학연구」, 제2호, 제주언어학회.
- 김양순·박연미(1994), 「영어통사론강의」, 형설출판사.
- 김한창(1991), 「신대학영문법」, 형설출판사.
- 양우진(1998), 「GB이론」, 한신문화사.
- 윤만근(1997), 「생성문법론」, 한국문화사.
- 이기동·안승신·서진희(1995), 「영어통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익환·김영철·양운국·권경원·한종임(1995), 「현대영어학개관」, 한신문화사.
- 전형진(1991), 「영어의 생성문법」, 신론사.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 _____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Anderson, S.R and Kiparsky, P. eds. 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75),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Plenum.
- _____ (1977), “On WH-movement,” *Formal Syntax*, Culicover, Wasow and Akmajian eds.,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 _____ (1986), *Barriers*, MIT Press.
- Han, Man-soo(1990), *Ambiguities, paraphrases, and grammatical elements in English*, Hanshin Publishing Company.
- Jespersen, Otto(1935),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oopman, H.(1984), *The Syntax of Verbs*, Foris.
- Lasnik, H.(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 Radford, Andrew(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well, T.(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 D. dissertation*, MIT.

<Abstract>

A Study on *Wh*-Movement in English

Oh, Kyung-bo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Tae-h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rgue unclear problems about the exact landing site of *wh*-movement and necessary constraint conditions against the sentence over-generation of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First of all, I studied extensive syntactic, morphological, phonological, and semantic arguments in support of postulating a rule of *wh*-movement in Transformational Generative Theory, and argued that the rule applies in a variety of *wh*-constructions - *wh*-interrogatives, relatives, *wh*-exclamatives, and cleft sentences.

The types of *wh*-constituent which undergo the rule are not only a *wh*-wor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0.

like who, what, when, why, where, which or how but also phrasal constituents containing a *wh*-phrase like *wh*-NP, *wh*-PP, *wh*-AP or *wh*-ADVP. *Wh*-movement, however, does not apply to *wh*-VP, and to clausal constituents, such as S', S or SC (small clause) containing a *wh*-XP.

The ultimate landing-site for preposed *wh*-phrases requires us to radically revise our earlier assumptions about the internal constituent structure of clauses. I argued that ordinary clauses are double-bar projections of a head complementizer constituent, and that preposed *wh*-phrases are moved by substitution into an empty C-specifier position to the immediate left of C-bar. This thesis showed that the same kind of arguments which led us to reanalyze S' as CP(=C'') also lead us to rethink of S as IP(=I'').

I studied that there are such constraints as Subjacency Condition, Empty Category Principle, and Barrier Theory as well as Trace and Binding in application of *wh*-movement rule. All movement transformations are intrinsically bounded in that they can move *wh*-constituents over no more than a single bounding node in any single movement.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re are strong empirical arguments in support of claiming that even *wh*-movement applies in successive steps and is thus inherently bounded. In relation to this argument, I looked at the ways in which transformations interact, discussing Chomsky's Strict Cyclicity Condition that the rules apply in subordinate domains before superordinate domains. ***